

www.hanjin.com.au HANJIN REMOVAL P/L **한진운송**

한국 / 호주 전지역 및 세계 각국 택배

● 일반이사 ● 해외이사 ● 택배이사

개업 21주년 기념 특별할인

정식 이사보험 가입된 회사
전통있는 최우수회사
믿을 수 있는 운송회사
고객 만족도 100%

7개 라인 최다차량 보유 8대

02 9648 2424

0431 24 24 24 23-25 Byrne St,
070 7899 4444 Auburn NSW 2144
removal@hanjin.com.au

한국신문

THE KOREAN HERALD
Australia NO.1 Korean Community Newspaper

한진IT 허 안토니오 Manager

분야별 전문 IT컨설턴트와 함께 합니다.

- 서버(AD, Exchange, DB)
- 네트워크 (WAN, LAN, VPN)
- Virtualization (vmware, Hyper-V)
- Security, Monitoring, Support
- Cloud Computing, Thin Client
- 도메인, 호스팅(자체 서버 보유)

it@hanjin.com.au / www.hanjin.com.au
02 8064 7466 / 070 7899 4400

No. 1584(호) 2024년 4월 26일

www.koreanherald.com.au / E-mail: herald@koreanherald.com.au

제이원 보석 J.Won Jewellery

다이아몬드, 진주 도매업체
결혼예물, 커플링, 돌반지 등

*금 매입합니다.

스트라스필드 플라자 1층 8호 T. 9763 1355
Mon-Fri : 10am-6pm / Sat : 10am-3pm
(플라자 안 우체국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세요)



선한 목자 그리스도 교회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 이들은 중동지역 국가에서 종교적 박해를 받다가 호주로 이주한 그리스도교 신자들이며, 그 야근 기적이 교회 지도자 공격에 분노하게 했고, 폭동으로 번졌다는 분석이다. 사진: Nine Network 뉴스화면 캡처

K 민사 형사 기업 부동산 고용법 이혼

KIM & ASSOCIATES

김성호 대표 변호사
직통 무료 상담
(02) 9283 5550
KNA1805

Hti Home Loan Finance

당신의 행복 파트너

하이홈론 파이낸스

장현철 0430 421 115

mirae 미래종합금융/보험

우량 보험사간의 비교견적을 통해 가장 저렴하고 적합한 비즈니스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 신규사업 보험 전문 상담 ■ Public Liability
- 상업용 건물 · 차량 · 장비 보험
- Workers Compensation
- Professional Indemnity
- 생명보험 · 암보험
- 현재 가입된 보험 무료 Review

호주 전 지역 보험 진행 가능

www.miraefinance.com.au
스트라스필드 플라자 6층 603호 1300 882 595

종합음악학원 Lily Kim Music Academy

기초가 탄탄한 아름다운 음악교육

- ✓ 1:1 오프라인 개인수업
- ✓ 1:1 온라인 수업
- ✓ ABRSM Exam 준비
- ✓ 취미반
- ✓ 성인반
- ✓ 기타 등.. 수업문의

0401 575 567
lilykimmusicacademy@gmail.com

Christ the Good Shepherd Church에서의 폭동, 이유는...
"억압과 박해를 경험한 공동체 역학-명예기반 문화의 일부" ▶A3면

주택 보유자가 오래도록 거주하는 시드니 교외지역은 ▶B19면

Western Australia에 있는 또 하나의 시간대 'Central Western Time' ▶A24면

www.koreanherald.com.au / E-mail: herald@koreanherald.com.au

AUS SOLAR ENERGY GROUP 태양광 솔라 설치!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0426 714 188
Oliver Kim (한국어 문의)

꼬치전문점

일 말 에

하루의 끝에 행복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스트라스필드 메리튼 아파트 정문 앞에 위치
SHOP 121/20-34 ALBERT ROAD, STRATHFIELD

시드니 최고의 요지 '로즈' 신규분양 판매 임박

로즈 Rhodes 최상의 건설품질! 마지막 프라임 로케이션!
평생 워터뷰 & 시티뷰, 독보적인 매물을 선점하실 수 있는 기회!!

1,2,3 베드 평생 워터뷰 문의요망

빌버지아 건설사 | 인스펙션 상담문의 **윤호인 0415 007 109**
틈세일즈 에이전트

카슬브룩 한인 추모공원

영구보존 및 관리 | 가족묘 | 개인묘
다양한 화장묘 및 매장묘 판매

무이자 할부판매 * 전문 한국어 상담사 NO 관리비

홍지윤 Sue Hong 0450 396 337

LoanCare Homeloans FBAA M-326343

정확한 조인! 빠른 승인! 이자율 비교!

필요할 때 힘이되는 **용자전문가**

- 01 주택융자 up to 95%
- 02 자동차 & 장비 어디서 사든 가능
- 03 Private Lending (2nd Mortgage도 가능) \$50,000~\$3M까지
- 04 상업건물 up to 75% (Lo Doc 70%)
- 05 Lo Doc (No Tax Return) up to \$2.5M
- 06 Business & Construction Loan

M. 0421 578 822 E. linaleeau@gmail.com
8A, 38 Rowe St, Eastwood DIRECTOR: Lina(Sang Rye) LEE

Little's 법무법인 리틀즈

교통사고! 일하다가! 다쳤어요!

NO WIN
NO FEE

무료상담

- #교통사고
- #산업재해
- #연금보험
- #공공장소사고
- #개인상해

사고로 인한 개인 상해 보상! 배상은 치료비 뿐만이 아닙니다!



이러진 변호사
0408 249 334



안가희 변호사
0408 632 333

재활 및 의료비용 | 주급 손실 | 심각한 상해시 일시불 배상금

Level 5/32 Martin Pl, Sydney NSW 2000

'선한 목자 그리스도 교회'에서의 '폭동' 군중은 누구이며, 왜 발생했나...

설교 중인 아시아 정교회 주교에 대한 공격, 지역 기독교 종파 신자들 '분노' 야기
지역적 소외감, 극단적 보수 성향 기독교인들의 '명예 기반 문화'도 한 요인으로 분석



웨이클리(Wakeley)에 있는 '선한 목자 그리스도 교회'(Christ the Good Shepherd Church)에서 설교 중인 주교가 흥기 공격을 받는 장면의 영상이 유포되자마자 종교 지도자의 공격 행위에 분노한 이들이 해당 교회로 몰려와 경찰들에게까지 폭력적 행동을 벌이고 있다. 사진: Nine Network 뉴스화면 캡처



Christ The Good Shepherd Church 마르 마리 엠마누엘 주교(Bishop Mar Mari Emmanuel)를 흥기로 공격하는 16세 소년의 영상. 엠마누엘 주교가 설교를 하던 중 제단 앞으로 다가선 소년이 망설임 없이 칼을 내리치고 있다. 사진: ABC 방송 뉴스화면 캡처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대유행이 시작되고, 이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외출이나 집회 등을 제한하는 조치가 이어지던 2021년 7월 21일, 웨이클리(Wakeley)에 있는 '선한 목자 그리스도 교회'(Christ the Good

Shepherd Church)의 마르 마리 엠마누엘 (Mar Mari Emmanuel) 주교는 많은 이들의 주목을 끄는 설교를 했다.

그는 당시 시드니 서부 지역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던 팬데믹 제한 조치에 대해 "이는 절대적인 노

에 조치이다. 주교로서, 교회 지도자로서, 나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일을 듣고 본다. 그들은 정신, 감정, 육체, 영적 및 재정적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보건 당국의 결정을 비난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증폭된 그의 이 설교는 그를 '스타'로 만들었고, 어느

사이 그에게는 '틱톡 주교'(TikTok bishop)라는 별명이 붙었다. 시드니뿐 아니라 그는 전 세계 보수 기독교 신자들을 자신의 온라인 예배에 끌어들이고, 그들의 추종을 받았다. 또한 그는 도널드 트럼프

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트럼프가 두 번째 대선에서 낙방하자 그는 "미국 선거는 '비밀 조직'에 의해 조작되었다"고 주장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so-called coronavirus) 것의 "백신에 반대한다"는 말로 신자들을 현혹시켰다.

극히 보수적 성향을 가진 그의 발언은 지난 4월 15일(월) 저녁, 예배를 주도하던 그가 교회 내에서 한 10대 소년의 흥기 공격을 받은 후 다시 회자됐다.

▶ 30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피아노의 명가(名家)

가스펠피아노
 www.gospelpianos.com.au

C. BECHSTEIN 벅스타인	Wm. Knabe & Co. 크나베
W. HOFFMANN W.호프만	KOHLER & CAMPBELL 컬러앤캠벨
SEILER 자일러	KETRON 케트론(이태리)
Roland 로렌드	CASIO 카시오
YAMAHA 야마하	KAWAI 카와이



- Pianos
- Keyboards
- Digital Piano
- Ukulele
- Guitar
- Flute
- AMEB Grade Exam Book
- Lesson Book 교재
- Organ

가스펠 피아노사는 독일, 한국, 일본, 이태리,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피아노, 디지털 피아노 및 키보드 등을 직수입하여 호주 전 지역에 총판하고 있습니다.

시드니 최대 새 피아노 & 중고 피아노 총판매장

CLYDE | 35-37 Parramatta Rd
PH 9724 2022

RYDE | 231-235 Blaxland Rd (Cnr Lane Cove Rd)
PH 9809 5000 일요일 오픈

'Bondi Junction massacre'로 호주의 '정신건강 대비 부재' 문제 부각

환자 및 가족 대상의 지원 없어... 관리 시스템 문제, 30년 전 관련 기관 폐쇄로 시작



웨스트필드 본다이정션(Westfield Bondi Junction) 쇼핑센터에서 한 정신분열증 환자의 무차별 칼부림으로 6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정신건강 관리 시스템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사진: Unsplash/Vesky

클레어 존스(Claire Jones, 가명)씨는 지난 4월 13일(토) 웨스트필드 본다이정션(Westfield Bondi Junction)에서 발생한 무차별 칼부림 살인자 조엘 카우치(Joel Cauchi)의 부모가 겪은 고통과 트라우마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정신건강'을 향한 그녀의 여정은 지난 30년 동안 계속됐다. 조엘의 부모인 앤드류와 미셸 카우치(Andrew and Michele Cauchi)씨는 막내 아들인 조엘이 17살 때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았으며, 그후부터 조엘을 돌보는 데 어

려움을 겪었다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조엘 카우치가 안고 있는 질병은 존스씨의 남동생과 동일한 것이며, 그의 이 질환은 존스씨의 부모가 평생 부담했던 것이기도 하다.

존스씨의 남동생은 조엘 카우치(40)보다 나이가 적다. 그날(4월 13일) 카우치가 30cm 길이의 칼을 들고 본다이정션 쇼핑센터를 활보하는 모습을 TV로 보면서 그녀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고 말했다.

존스씨는 남동생을 화나게 할 가능성을 피하고자 신원을 밝히고 싶어하지 않지만 정신분열증 환자와 그 가족을 옹호하고 싶어한다. 물론 그녀는 카우치의 공격을 받고 사망한 이들 및 부상자들에게 큰 슬픔과 안타까움을 갖고 있

다.

그러면서 존스씨는 자신이 경험한 것처럼, 국가 차원의 정신건강 대책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대중들이 알기를 원하고 있다.

쇼핑센터 사건으로 정신건강 문제 '주목'

카우치는 본다이정션 쇼핑센터에서 경찰관의 총격에 사망하기 전, 6명을 칼로 살해했으며 12명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혔다.

카우치의 부모는 이 일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카우치가 더 이상 정신건강 약물 복용을 하지 않았으며, 자신(조엘)이 한 일을 안다면 조엘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70대의 카우치씨 부부에

따르면 조엘은 약 5년 전, 그를 돌보았던 의사와 상담 후 정신분열증 치료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그날 오후 벌어진 쇼핑센터에서의 끔찍한 사건은 이제 경찰 및 검시관 조사(coronial inquest. 검시관이 사망자의 사망일, 장소, 사망 원인과 살해 방식을 파악하고자 증거를 검토하는 법원 심리) 대상이 됐다.

조사의 일부는 사건 당시 카우치의 정신건강 상태, 브리즈번(Brisbane) 서쪽 지방 도시 투움바(Toowoomba)에서 시드니로 이주하기까지 몇 달 간의 행적에 초점이 맞추어질 전망이다.

▶ 18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정동철 변호사

한국 형사문제 도와 드립니다

불가피한 사정이나 정황 때문에 한국에서 형사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호주로 와 기소 중이나 유예 등의 상태로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형사 분야에 전문 베테랑 한국 변호사와 긴밀히 협력해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드립니다. 이런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해결하기가 어려워지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제대로 법적 대응을 해야만 형사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원만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결단하실 때입니다.

법률 및 컨설팅 서비스

- 회사/비즈니스/개인 관련 소송 등 제반 분쟁 해결
- 비즈니스 매매, 주류라이선스, 리스 등
- 주택, 상가 매매 및 부동산 개발
- 이혼, 재산분할, 자녀 양육권 분쟁
- 유언장 작성, 유산 집행 신청, 법적 대리인(POA) 지정
- 투자, 사업, 창업, 학업, 취업 등 여러 문제에 관한 컨설팅 서비스

이민법 서비스

- 사업 및 투자비자, 이민/취업 고용 비자, 이민
- 점수제/주정부/지방고용주 기술비자/영주권
- 가족이민(결혼/부모/자녀 초청)
- 종교인 비자/Labour Agreement
- 재심/장관탄원/연방법원 제소
- 코로나19 관련 호주 입국 제한 면제 신청

노터리 퍼블릭/서류작성 서비스

- 노터리 퍼블릭 공증 및 아포스티유
- 정부, 학교, 병원 등을 대상으로 한 공식 편지, 이메일 작성 대행
- 각종 신청서류(연금, 수당, 보험금 등) 작성 대행

0412 779 281



카카오톡 아이디 : doota21

이메일 echolawyers@outlook.com

주소 Suite 16, Level 2, 10 East Pde Eastwood NSW 2122

ECHO
LAWYERS



호주 유일! 15년 경력
CEC 호주정부 승인

태양광 솔라 설치 전문업체!

EOFY 회계년도 마감까지

D-9 Weeks!

25년 패널 제품워런티 & 30년 패널성능 워런티 제공



5월 특가 할인중!

AUS Solar Energy Group은 고객님과 약속합니다!

1. 10년 이상의 확실한 워런티 보증 서비스
2. 호주 유일 13년 경력의 CEC정부허가 보유 업체
3. Aus Solar 소속 설치팀 & 전기공 사용 (하청업체 사용 X)
4. Roof 지붕 워런티 보증 서비스 완벽제공

타업체가 CEC 정부승인 & 13년이상 경력 업체일시, 솔라 설치비용 타업체와 가격 비팅 가능 !!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가정용 솔라 시스템

6.6KW 태양광 시스템 **\$4,090** (inc Gst) or **\$356.16** / 12개월 무이자 할부

10.37KW 태양광 시스템 **\$6,090** (inc Gst) or **\$522.82** / 12개월 무이자 할부

13.3KW 태양광 시스템 **\$7,390** (inc Gst) or **\$631.16** / 12개월 무이자 할부

상업용 솔라 시스템

20KW 이상 PPA 솔라계약 가능
0 upfront payment

- 5년 파이낸스 할부 가능합니다.
- 7.8KW 솔라 설치도 가능합니다.
- 솔라 배터리 추가설치도 가능합니다.
- 현재 있으신 태양광 솔라 점검 & 수리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0426 714 188

Oliver Kim (한국어 문의) Sales & Marketing Manager
Oliver.kim@aussolarenergygroup.com.au





김성호의
호주 법 칼럼

김성호 변호사

TALK KNA1805

자 존 심

오래전 한국 준정부 기관 직원이라 자기소개하는 젊은 남자로부터 전화를 받은적이 있었다. 돈을 되찾아 주거나 부채 회수 전문 기관인데 호주로 도주해서 거주하는 한국 법정 부채자의 재산 회수 업무를 도와줄수 있겠는지 문의였다. 갈수록 좋아지는 국제 전화 통화품질로 들리는 맑고 차분한 목소리, 정확한 정보, 공손한 말투의 발신자는 피싱전화가 아닐것라는 신뢰를 주었다. 호주에서의 법률절차를 알려주고 몇차례 전화 통화 후 수입계약서와 안내 서신을 보냈고 수입 확인도 받았다. 그리고 나서 몇일 후 공손한 젊은이로부터 계면적은 음성의 전화를 받았다. 얼굴을 볼수는 없었으나 무안한 표정이었음에 틀림없었다. 상관 2명이 이 문제로 서울에서 시드니로 출장 가는데 공항픽업 및 숙소예약 부탁이었다. 그럴수도 있을법한

놀라운 일은 아니었으나 쓸데없는 자존심에 공항픽업 업소 연락처를 알려주는 것으로 마지막 연락을 하였다. 그로부터 몇년후 그들이 어느 변호사를 선임해서 돈 회수에 성공은 했으나 그 변호사가 회수된 돈을 가로채는 바람에 결국 그 변호사도 고소했어야 했다는 말을 들은적이 있다. 호주 지방 도시 병원에서 생사의 기로에 서있던 아들을 찾아 한국에서온 어머니의 대면 상담 요청에 자동차, 기차, 비행기를 타고 갔것만 만나주지 못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돌아온적도 있었다. 자존심이란 쓸데없는 것이라고 깨달았던 때라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럴수도 있지 라 믿었다. 그런데 2주 후에 그분으로부터 다시 와줄수 있겠냐는 문의전화를 받았다. 다시 자동차, 기차, 비행기를 타고 찾아가서 상담을 마치고 수입한

적도 있었다. 쓸데없는 자존심은 결코 자랑할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사무실로 처음 전화 걸어 통화를 시작하면서,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 긴 통화는 어렵고 간략하게만 물어보겠습니다” 라고 말문을 뗀 여성이 있었다. 전화받은 변호사의 무조건적 성실한 법률조언이 당연하다는듯 말이다. 그럴수도 있겠지. 장래 수입을 약속하며 다급한 경비 지불을 부탁하는 한국의 중소기업도 있었다. 자영업자인 변호사의 생존에 영업과 수입은 필수 요소이겠으나 기업의 태도는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다. 구부러지지 않는 성격에다 한번 꺾이면 절대 회복이 안된다고 소송을 강행한 의뢰인에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다시피 합의를 설득한 적이 있었다. 역설적이나 소송과 재판으로 밥먹고 살아가는 판사와 변호사들이 가장 선

호하는 단어는 타협이고 합의이다. 소송업무란 창의적이고 건설적이기 보다는 쏟아진 물을 주워담는 일과 같기에 자존심이 설 자리가 있으면 안된다. 그렇지만 변호사들도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이기에 자존심이 자극되면 명예훼손 소송을 시작하기도 한다.




면책공고 Disclaimer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므로 위와 관련된 구체적 법적문제는 변호사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고객님에 의한, 고객님을 위한
용자 상담인이 되겠습니다!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 고준서 드림 -

 주택용자
- 첫 주택구입
- 투자
- 재용자

 상업용 건물 용자

 자동차, 장비 용자

"Reserve Bank Of Australia (RBA)의 Cash

Rate 이 2023년 11월 7일 0.25% 올려서 **호주 중앙은행**
Cash Rate 은 4.35% 가 되었습니다.

RBA의 이자율 변동을 알고 싶으신 고객님들께서는
info@miraclefinance.com.au 이나
전화번호 **0408 815 816** 으로
정확한 영문 Spelling과 이메일 주소를 보내 주시면
매월 RBA 이자 변동 안내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유하고 계신 주택의 용자 이자율을 확인하셔서 Update된 낮은 이자율로 재용자 하시어 현금 보너스도 받고 낮은 이자율로 매월 상환되는 이자금액을 절약 하시기를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Australian Credit Licence Number:388928
ACN:135 113 594

MFAA Full Member 55117



Mob. 0408 815 816 / Ph. 02 8068 4168

1085 Victoria Rd, West Ryde NSW 2114

[주요업무]

- 서버 (AD, Exchange, DB)
- 네트워크 (WAN, LAN, VPN)
- Virtualization (vmware, Hyper-V)
- Security, Monitoring, Support
- Cloud Computing, Thin Client
- 도메인, 호스팅 (자체 서버 보유)



시드니대학에서 (Adv) Comp Engineering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호주 현지 대기업(HP, IBM)에서 업무능력을 인정받은

분야별 전문 IT컨설턴트와 함께 합니다.

한진IT



한 안토니오
Manager

it@hanjin.com.au / www.hanjin.com.au

02 8064 7466 / 070 7899 4400

HB Telecom

info@hbtelecom.com.au

02 8090 4490

070 7899 4400



사무실 전화 시스템

최고의 IP-PABX 장비

깨끗한 음질의 VoIP 서비스

한국 070 전화 (자체 서버 보유)



정식이사보험 가입업체
www.hanjin.com.au
HANJIN REMOVAL P/L

한진운송

일반이사/해외이사/택배 최다차량 보유 8대

7개 라인 최대형 10톤, 9톤, 6톤, 5톤, 4톤 트럭 2대, 벤 2대 보유

SPECIAL SALE **개업 21주년 기념 특별할인**



02 9648 2424

- 21년전통 최우수회사
- 가장 믿을 수 있는 운송회사
- 고객만족도 100%
- 호주에서 가장 잘하고 있는 한진!!
- 정식 이사보험 가입된 한진!!



대표 허요섭
(경영대학원 석사, 박사과정 수료)

한진운송만의 특징

1400㎡ 가 넘는 대규모 시큐리티 창고건물
호주정부에 세금많이 내는 카운슬 정식허가 등록 물류회사

0431 24 24 24
070 7899 4444

23-25 Byrne St.
Auburn NSW 2144
removal@hanjin.com.au

HB Music College



~살아 움직이며 활동하는 HB Music College 콩쿨 준비중~

본 음악원은 2004년에 오픈하여 그동안 승승장구 발전하며 분원까지도 Full lesson 예약되는 쾌거를 거뒀습니다. 하물며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음악인을 배출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음악원 및 하이스쿨에서도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계시며, 특히 많은 학생들이 Music Diploma 획득 및 Music Scholarship를 받은 큰 성과를 거두는 음악원이었다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올해는 "21년째 맞이하는 음악원 오픈 축하 기념으로 Big Competition"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도과목 HSC / 대학입시 / 각종 콩쿨 및 Music scholarship 준비생 / 음악영재 / 일반학생 (피아노, 바이올린, 클래식 기타, 첼로, 음악이론, 작곡, 플룻, 클라리넷, 색소폰, 성악)

☆ 원장 음악석사 허마리아 0433 534 881 | Tim Director (시드니콘 석사,박사 0430 054 476) | International Violinist 허 난

☆ 주소: 13 Abbotsford Rd Homebush (스트라스필드 도서관 옆) | ☆ 주소: 18 Abbotsford Rd Homebush (분원)

3월 실업률 0.9%로 0.1%포인트 상승... 인플레이션에 시선 '집중'

2만1천명 실직자 발생... RBA, "금리 인상 고려 않지만 '물가와'의 전쟁"은 지속"



통계청의 노동통계 데이터 결과 지난달(3월) 실업률이 0.1%포인트 상승에 그치는 등 견고한 고용시장이 이어지며 다음달(5월) 첫주 예정된 RBA의 금리 결정을 위한 통화정책 회의에 많은 이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사진: Nine Network 뉴스화면 캡처

실업률은 전달(2월) 3.8%에서 0.1%포인트 상승에 그쳤다. 3월 취업자는 2월 대비 거의 7천 명이 감소했으며 실업자 수는 거의 2만 1,000명 증가했다.

RBA 이사회는 인플레이션 수치가 계속 하락하고 실업률이 거의 역사적 최저치에서 서서히 상승함에 따라 지난해 11월 이후 기준금리를 4.35%로,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같은 기간, 호주 경제는 둔화되었고 강한 인구 증가가 경기 침체를 방어했다.

3월 실업률은 업무 패턴 변화로 인해 반등했지만, 추세를 보면 지난해 11월 이후 3.9%를 유지하고 있다.

신용평가기관 'Moody's Analytics'의 해리 머피 크루즈(Harry Murphy Cruise) 경제연구원은 "호주의 고용시장이 여전히 견제된 것은 확실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실업률의 견고성이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같은 기간 급격하게 하락했다는

점"이라며 "지난해 11월의 기본 인플레이션은 4.8%에 머물렀고 올 2월에는 3.9%로 하락했는데 이는 가장 최근의 데이터 포인트로, 조만간 나올 데이터는 더욱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제 컨설팅 회사 'EY'의 수석 경제학자 폴라 갓스비(Paula Gadsby) 연구원은 "실업률이 6월까지 4.2%로 높아질 것이라는 RBA의 전망이 있지만 견고한 노동시장이 이어지고 임금상승 압력이 계속되면서 인플레이션 수치가 더 오랫동안 높은 수준에 머물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녀는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노동시장이 견고함을 보이는 것은 좋은 결과로, 이번 실업률 수치는 5월에 있을 통화정책 회의에서 RBA가 '(금리 변동) 보류'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게 한다"며 "곧 나올 올 1분기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이제 5월 통화정책 회의를 앞둔 RBA의 주요 관심사가 됐다"고 설명

했다.

투자은행 AMP의 다이아나 무시나(Diana Mousina) 경제 연구원 또한 "고용 수치를 폭넓게 살펴보면 2022년 이후 노동시장이 확실히 악화되기는 했지만 예상보다 훨씬 더 나은 상태를 유지했다"면서 "노동시장 강세를 고려할 때 RBA가 곧 금리 인하를 서둘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이어 무시나 연구원은 "우리(AMP)는 RBA가 올해 중반쯤 이자율 인하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해 왔지만 곧 발표될 3월 분기 물가 수치가 인플레이션 속도를 줄이는 데 추가적 개선을 보여줄 것이라는 우리의 전망에도 불구하고 RBA의 금리 인하는 하반기 후반에 나올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당신의 행복 파트너, 하이홈론파이낸스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고 키워가는 일에서 중요한 것은 믿을 수 있는 금융전문가를 곁에 두는 것입니다. 처음 용자에서부터 용자 관리, 투자로 이어지는 자산 운용에서 하이홈론 파이낸스가 당신의 행복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첫용자

재용자

투자용자

건축용자

자동차용자

개인용자

- ✓ 고객을 위한 주택용자 상담
- ✓ 용자금에서 추가 Cash Out
- ✓ 재용자 Cash back 리베이트를 찾아 드립니다
- ✓ 초보 투자자를 위한 가이드
- ✓ Property Report 무료 제공



MFAA No : 156882

Credit Advisor **장현철 0430 421 115**

Suite 16, 10 East Parade, Eastwood, NSW, 2122

Homepage: www.hihomeloan.com.au

Email : hcchang@hihomeloan.com.au

고향에 따뜻한 온돌방이 그리우시죠 ?

호주 온돌 보일러 전문가

KOREA BOILER에게 맡겨주세요!

신축공사, 레노베이션, 그레이니 플랫 건축에도 따뜻한 온돌방 설치는 기본입니다. KOREA BOILER의 모든 보일러는 24시간 365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HUSPA 명품 온수 매트 판매!

포근하고 따뜻한 HUSPA INVERTER 잠자리를 디자인 하다!

건강을 위한 최고의 재테크, 휴스파 온수매트

공통구매 환영

2024년 최신행 명품 온수매트 판매중!



퀵, 싱글매트 자가드 침대원반



디지털 온수 보일러



거실용 모노룸 온수매트 세로 1830 mm 가로 2300 mm 특대 사이즈

휴스파 호주총판에서 최고급 품질의 온수매트를 최저가로 구입하세요!!



- 전자파 NO
- 난방비 절감
- 소음 NO
- 안전성 OK
- A/S OK
- 착한가격 OK
- 스마트 절전난방 인버터 기능
- 초저소음 특허기술 BLDC 펌프
- 내구성 UP 세라믹 샤프트
- 생활방수 진드기방지 항균매트

온수판넬형 (부분 판넬형)

오랜 전통의 한국 최초 정왕사 전기온수 보일러

사용 중이신 온수 보일러에서 소리가 나거나 녹물이 나오나요? 바닥이 균일하게 따뜻하지 않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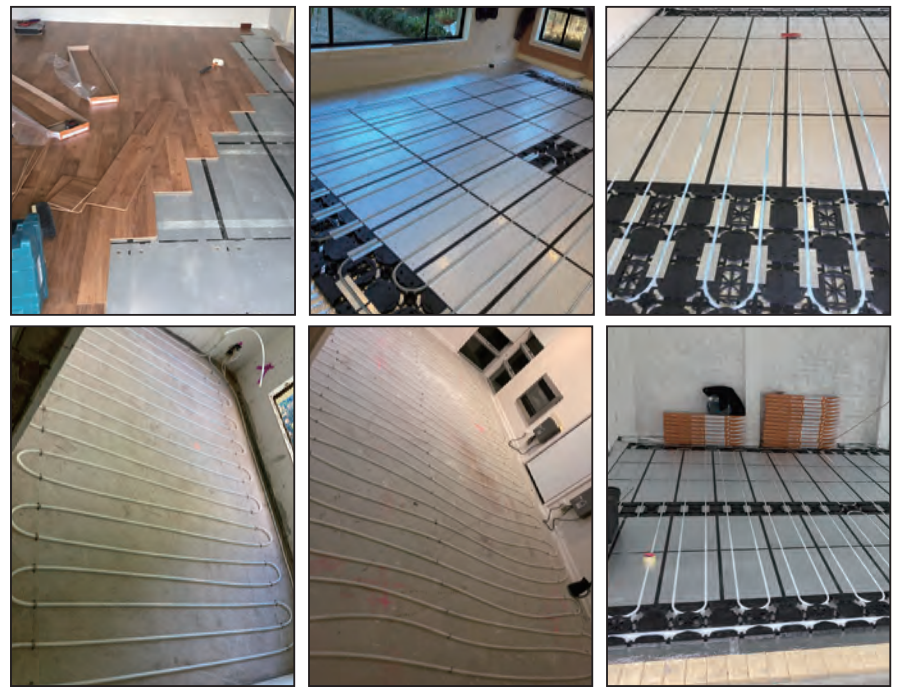
녹물이 나오는 보일러를 계속 사용하시게 되면 동파이프 판넬까지도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타사 전기온수 보일러 교체 및 신규 설치



온수보일러 화장실 바닥, 샤워장 바닥 온수설치

마루바닥, 타일바닥, 카펫바닥, 시멘트 바닥등 어느 곳에서나 설치 가능



방송인 이상벽이 선전하는 발목펌프 자동운동기

- 골프를 치고 뒷다리가 당기시는 분
- 계단을 내려갈 때 다리가 당기시는 분
- 과체중으로 다이어트를 고민하시는 분
- 등산할 때 내리막길에서 다리가 힘드신 분
- 혈액순환이 안 되시는 분
- 손발이 자주 저리고 차가운 분
- 괘편이 어려우신 분
- 오래서 서 임하시는 분

선착순 20명, 마지막 20대 한정!!



정확한 사용법은 "누운상태에서 사용해야" 뚜렷한 운동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BEST CHOICE



태일 전기온돌 하루만에 시공하는 난방공사

보일러가 필요없으며, 방바닥을 뜯지않고, 하루만에 시공하는 난방공사! 스위치 작동 후 5분이면 난방이 가능합니다.

1억원 보험 가입

간편한 시공! 마루, 타일, 카펫등 어느 곳이나 단 30분만에 시공 가능합니다. 안전 검증! EMI, EMS 승인을 거친 전자파 시험필 제품입니다. 간편하고 실용적! 이동이 간편한 병풍식 구조 및 초절전형 시스템 철저한 AS소유! 걱정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신행 조절기 UP-2S



MIN HYUK PTY LTD

주문 및 시공 바닥 레노베이션 전문 온돌 마루시공
태일전기/정왕사/HUSPA보일러 호주총판 웰빙온돌사업부

121 Darvall Rd, West Ryde / E. ondol_bang_@hotmail.com T.02 9787 2124 M.0410 408 814

'국경 폐쇄' 단행했던 팬데믹 4년... 호주 여행산업, '더딘 회복' 지속

2019년 870만 국제 여행자 방문-1,660억 달러 산업, 2023년에는 660만 명 그쳐



호주 관광 산업이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Tourism Research Australia의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2023년) 호주를 방문한 해외 여행자는 660만 명에 그쳤다. 이는 2019년 수준에 비해 200만 명 이상 적은 수치다. 사진은 시드니 서큘라키(Circular Quay)를 오가는 사람들. 사진: 김지환 기자 / The Korean Herald

마르셀라 리베이로(Marcela Ribeiro)씨는 꿈에 그리던 호주에서의 휴가를 위해 지난 2년 동안 세 가지 일을 하며 경비를 모았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처럼

브라질의 35세 청년은 오랫동안 호주의 유명한 여행지, 특히 그레이트 배리어리프(Great Barrier Reef), 세계자연유산(World Heritage)에 등재된 호주의 열대

우림, 세계적 명성의 해변 등을 탐험하고 싶어 했다.

그는 “항공료가 너무 높아져 여행 중에 지출하는 모든 비용을 조심해야 한다”며 “매일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할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최근 호주에서 휴가를 보내고자 시드니에 도착한 캐나다 여행자 윌리엄 그르바바(William Grbava)와 필리핀에서 온 아멜리아 몬디도(Amelia Mondido)씨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그르바바씨는 “호주 체류 비용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비싸다. 때문에 우리는 여행 지역을 시드니로 한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주 관광업계, “팬데믹 이전 수준 회복 안 돼”

전염병 대유행이 시작되자 호주는 다른 국가와의 민간 교류를 차단했다. 국경을 폐쇄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를 해제한 지 거의 4년이 지나고 있다. 팬데믹 사태는 국가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입혔지만 관광 산업만큼 그 고통이 즉각적이고 파괴적인 부문도 없을 것이다.

전염병 대유행이 시작되기 전인 2019년, 전 세계에서 호주를 찾는 여행자는 870만 명, 이들에 의한 산업 규모는 1,660억 달러에 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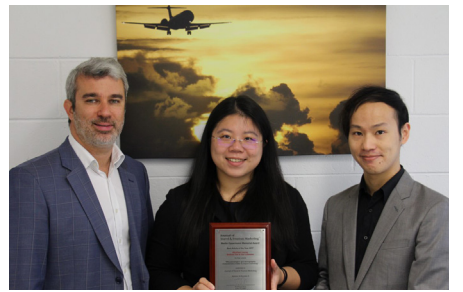
연방정부 기구인 호주 관광연구원(Tourism Research Australia)의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2023년) 호주를 방문한 해외 여행자는 660만 명에 그쳤다. 2019년 수준에 비해 200만 명 이상 적은 수치다.

해외 여행자 감소 비율은 빅토리아(Victoria) 주가 33%로 가장 높았고, 퀸즐랜드(Queensland, 24%), NSW(22%)가 뒤를 이었다.

전국적으로 팬데믹 이전, 호주 여행자의 대다수를 차지했던 중국 관광객은 2019년 130만 명에서 지난해에는 50만7,000명으로 급감했다.

올해 2월 통계를 보면 호주 방문 해외 여행자는 85만 명 이상으로 2023년 같은 기간(2월)에 비해 25만7,000명 증가했지만, 이 수치 또한 팬데믹 이전에 비해 7.5% 낮은 수준이다.

그리피스대학교 ‘관광연구



그리피스대학교 ‘관광연구소’(Institute for Tourism, Griffith University) 책임자인 구이 로만(Gui Lohmann, 사진 맨 왼쪽) 교수는 호주 방문 여행객 수의 더딘 회복에는 국내의 높은 생활비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의견이다.

소’ (Institute for Tourism, Griffith University) 책임자인 구이 로만(Gui Lohmann) 교수는 호주 방문 여행객의 더딘 회복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우선, 호주의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건비, 식비 등의 비용이 크게 상승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들은 장거리 항공 여행이 환경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을 갖게 됐으며 실제로 이를 꺼린다는 설명이다. 로만 교수는 “유럽인의 여행 방식이 항공기보다 기차로 대체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악화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선거도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그러면서 로만 교수는 “팬데믹 이후 우리가 직면한 세계는 훨씬 더 복잡하다”고 말했다.

호주 여행산업 회복, “아직은 멀다”

영국 ‘Oxford Economics’ 예측에 따르면 호주 관광 산업은 2025~26년이 되어야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호주 여행산업을 이끄는 호주관광청(Tourism Australia)은 호주 국경이 재개된 이후 가장 강력한 시장은 뉴질랜드, 미국, 영국이라고 밝혔다. 관광청 대변인은 “해외 여행객의 호주 방문이 예전 수준으로 회복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며, 점차 그 수가 늘어나는 것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CANADA BAYCLUB **STANMORE MAZDA**

DINE, CASH, CAR

\$64,000 가치의 현금 및 상품

매일 티켓을 모아서 당첨의 기회를 누리세요!

매주 월요일	매주 수요일	매인 추첨
\$1,000 다이닝 바우처	\$5,000 현금 상품	MAZDA2 27,000불 상당
매주 월요일마다 10개 x \$100 추첨 2024년 4월 1일 월요일 - 2024년 5월 13일 월요일 피닉스 중국 요리 다이닝 바우처 획득 \$7,000 전체상품, 70명의 행운의 승자	매주 수요일마다 \$5,000 추첨 2024년 4월 3일 수요일 - 2024년 4월 8일 수요일 2개 x \$1,000 & 12개 x \$300 현금 획득 \$30,000 전체상품, 18명의 행운의 승자	매주 월요일마다 10개 x \$100 추첨 2024년 5월 15일 수요일 추첨 2024년 마즈다 2 G15순수 오토매틱 해치백 획득 \$27,000 상당의 상품

참가 응모가 시작되었습니다

3월 25일 월요일부터 매일 티켓을 매주 월요일 및 수요일 추첨용 컨테이너에 넣어주세요. 모든 티켓은 매 주 수요일 밤 현금 추첨 후 주요 상품 컨테이너로 이동됩니다. 적용되는 조건 및 계약이 있으며, 프로모션 약관 및 조건을 확인하려면 접수처를 방문하세요.

특별한 것이 곧 찾아옵니다...
5월 중순에 캐나다 베이 클럽에 피닉스 중국 레스토랑이 오픈됩니다.

CANADABAYCLUBFIVEDOCK **CANADABAYCLUB.COM.AU**



호주 뉴질랜드 비즈니스 매매 경력 20년
비즈니스 매매 공인중개사 | Hannah Ahn 한나 안
E. hannah@sbx.com.au | M. 0402 681 035



Tel. 1300 366 655 | A/h. 02 8819 6703 | Fax. 61 2 9439 5944 | Add. Suite 1, 2, 2-4 Pacific Highway, St Leonards Sydney 2065 NSW, Australia

비즈니스 매매 에이전트 35명으로 구성된(중국인 브로커 6명 포함), 호주에서 가장 큰 규모의 비즈니스 매매 전문회사입니다.

1	카페 (Ryde 인근 지역) "New", "추천 매물"	Price \$209,000 매출 \$13,500/주 순익 \$25,200/월	빠곡한 아파트 밀집 지역 내에 위치한, 하나뿐인 경쟁업소 없는 카페. 순익은 주인 두 명 풀타임 근무 기준이며, 직원 더 쓸 경우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오픈 4년 된 산뜻하고 분위기 있는 카페. 트레이닝 후 누구나 쉽게 운영 가능한 메뉴의 데이터임 카페 (7:00-3:00pm) 디너 메뉴 추가 오픈 경우 더욱 높은 순익 가능하며, 면적 실내108sqm(좌석 24 석), 실외 32sqm(29석), 드물게 볼 수 있는 아름다운 Water View Cafe입니다.
2	슈퍼마켓 (North Sydney 지역) "New"	Price \$40,000 임대료 \$830/주	비즈니스 가격 \$40,000 은 물건값 \$30,000 포함해서입니다. 노스 시드니 주택 밀집 지역 내에 위치한 아담한 규모의 슈퍼마켓. 음료수, 과자, 냉동식품, 아이스크림 등 일반 슈퍼마켓 취급 품목, 새 주인 품목 추가, 홍보, 광고 경우 지금보다 매출 더 나아질 잠재성 많은 슈퍼. 현주인 개인 사정으로 급매 원합니다. 자세한 내용 문의 바랍니다.
3	일식 철판요리 레스토랑 (버우드 인근 지역) "New", "추천 매물"	Price \$229,000 매출 \$12,000/주 순익 \$16,000/월	매출 대비 순익 좋은 철판요리 레스토랑. 카페 식당 등 밀집한 메인 도로변에 위치. 주 6일 디너 위주이며 짧은 영업시간 (평일 3시간 오픈) 주변 시세보다 반정도 저렴한 임대료, 높은 객단가 (평균 \$110/person) 에 두가지 코스 메뉴로만 운영. 일식 또는 카페 메뉴를 첨가 브런치, 런치 메뉴 첨가 경우 운영 더욱 좋을 수 있음. 홈 딜리버리 시작하면 더욱 좋을 수 있어요. 면적 100sqm, 가게 앞 outdoor seats 16석 설치 가능.
4	대형 피시마켓/Fish and Chips (대형 쇼핑몰 내, Inner West 지역)	Price \$1,290,000 매출 \$180,000/주 순익 \$312,000/월	대형 쇼핑몰 내 엄청난 실적 잘되어있는 생선가게. 피시앤칩스입니다. 현주인 10년 창업중이며 최근 레노베이션 했고, 새로 임대 기간 8년 받았어요. 운영 시스템 잘되어 있으며, 대형 냉동고, 냉장고, 유리 카운터, 디스플레이, 모두 훌륭한 대형 생선가게. 두 가정 혹은 파트너쉽으로 운영 경우 높은 순익의 훌륭한 비즈니스로 추천합니다. 회계자료, 매출자료. 구매 인보이스 등 확인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 문의 바랍니다. 한나 안/0402 681 035
5	중국식당 (한인 밀집 지역) "추천 매물"	Price \$129,000 매출 \$21,000/주 순익 \$50,276/월	한인들이 거주하는 동네 중심 대로변, 카페, 레스토랑 거리에 위치한 매우 성업 중인 중국 식당입니다. 현재 가게 주인 한국인이며, 순익은 직원 없이 가족 운영(4명) 순익입니다. 시설 매우 잘되어 있으며 특히 냉장고, 냉동고, WOK 등등 부엌 설비 최상이고요. 플랫폼 하여주며 매출 POS Machine 에 확인 가능해요. 가족 혹은, 파트너로 운영 경우 비슷한 금액의 순익 확실한 비즈니스로 적극 추천합니다.
6	Sushi Takeaway / 일식당 (Mana Vale 지역)	Price \$190,000 매출 \$15,000/주 순익 \$22,000/월	1998년에 오픈한 오랜 전통의 유명한 수시 테이크웨이/일식당 입니다. 면적 75sqm, 좌석 34석의 적당한 규모의 일식당. Full commercial kitchen 시설되어 있으며 면적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높은 순익의 일식당.
7	Gong Cha (Ashfield 지역)	Price \$80,000 매출 \$9,800/주 순익 \$16,500/월	맛있는 건강음료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famous pearl milk tea, taro milk foam smoothies, matcha red bean, milk tea with grass jelly 등등. 현재 호주 전역에 1600개의 체인점을 두고 있으며, 가게 내 매출 \$8,300/주, home delivery \$1,500/주 입니다. 현 위치 10년 영업, 위치가 매우 좋아요.
8	Tea house / Cafe / Takeaway (Caringbah 지역)	Price \$280,000 매출 \$20,000/주 순익\$14,400/주	Tea and coffee house selling 커피 판매 30kg/주. All day breakfast, lunch menu and home made cookies. Dining and picnic boxes. 실내 52석, 실외 10석. 분위기 있는, 카페. 면적 140sqm,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결혼식 피로연으로도 자주 이용되고 있음. 현 위치 20년 성업 중인 알짜 현지인 카페.
9	타이 레스토랑 (Northmead 지역)	Price \$90,000 매출 \$7,100/월 순익 \$8,400/월	현주인 타이레스토랑으로 운영 중, 수시 테이크웨이/일식당으로 전환하면 더욱 좋을 것 같아 추천합니다. 좌석 - 실내 22석, 실외 10석 주류 라이선스 (STA), Grease trap 있고, 공용주차장에 인접해 있음.
10	옷 가게 (한인 밀집 거주 쇼핑몰 내) "추천 매물"	Price \$65,000 임대료 \$903/주 순익 \$11,100/월	한인들이 주거 많은 지역 쇼핑몰 내 위치한 적당한 규모의 옷 가게. 여성 의류, 가방, 신발, 액세서리 취급 중이며 새 주인 다른 품목 취급도 가능함. 간이 부엌시설 갖추고 있고, 현주인 26년 꾸준히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안정적 비즈니스. 여자 친구분 두 분 교대로 일하며 짝짱한 순익 가능한, 아이디어 많은 비즈니스로 추천합니다. 목이 좋고 (쇼핑센터 입구) 크기가 적당해서 옷가게 아닌 다른 업종도 센터 승인 후 가능해요 - 회계사 사무실, 마사지, 미용실, 이발소, 네일샵 등등)
11	대형, 럭셔리한 일식당 (Wentworth Point 인근 지역) "추천매물"	Price \$659,000 매출 \$45,000/주 순익 \$51,248/월	신선한 일식 재료를 사용으로 매우 성업 중인 일식당입니다. 인테리어 엄청 잘 되어 있고, 좌석 84석, 면적 280sqm. 쇼핑몰 푸드코트 내 레스토랑 밀집한 곳에 위치하고 있음. 일식당 운영 경험 있는 부부 혹은 파트너 운영에 적합하며 주류 라이선스 보유, 대부분 로열 고객층으로 일인당 소비 금액 높아요. 현주인 38년 동종업종 근무로 Retire 원합니다. 자세한 내용 문의 바랍니다.
12	Convenience Store / Asian Groceries (Strathfield 인근 동네)	Price \$280,000 매출 \$22,000/주 순익 \$23,900/월	레스토랑, 그로서리 스텍, 카페, 옷 가게 등등 밀집한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면적 103sqm + 53sqm 의 적당한 규모의 아시안 그로서리입니다. 최근 주류 라이선스 취득으로 매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가게 주변 아파트 밀집 지역. 마진 높은 슈퍼마켓. 마진 매출의 47%.
13	카페 (Lidcombe 지역) "추천 매물"	Price \$119,000 매출 \$10,000/주 순익 \$11,000/월	레스토랑, 카페, 슈퍼 등 리테일 스텍 즐비한 대로변에 위치한 아담한 카페. 산뜻하게 가게 내 레노베이션 했고, 쿨링 후드 설치 중이며, 매출 점점 나가고 있어요. 순익은 매니저 운영기준. 새 주인 부부가 운영 경우 더 높은 순익 가능한 운영 간편한 카페. Hot food lunch menu 추가 경우 더욱 매출 높아질 수 있는 잠재성 많은 카페. 좌석 22석.
14	주유소+ 슈퍼 (Ashfield 인근 동네)	Price \$495,000 매출 \$144,838/주 순익 \$13,400/월	차량 유동 엄청 많은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 달 주유 판매량 300,000 리터. 슈퍼 매출 \$55,000/월 - 마진 매출의 35%. 6 Browsers 에 주유구 24개의 규모. - E10, 91, 98, 취급. 주유, 슈퍼 판매 이외에 Petrol company 로부터 연간 \$28,000 추가 보너스를 받음. 자세한 내용 문의 바랍니다.
15	카페 / 테이크웨이 (Petersham 지역)	Price \$380,000 매출 \$20,000/주 순익 \$16,800/월	Classic Style Cafe with Vintage decor with a total area of 120sqm. 한주 커피 판매 30Kg, 좌석 54석, 분위기 있고, 인테리어와 메니즈먼트가 훌륭한 카페입니다. 현주인 10년 이상 운영 중이며 고정 고객들로 늘 수입 안정적 비즈니스.
16	카페 / 테이크웨이 (Woollahra 지역) "추천 매물", "특매물"	Price \$95,000 매출 \$18,000/주 순익 \$8,400/월	High volume coffee sales 40Kg/week, 좌석 36석, 현 위치 20년 전통의 매우 안정적, 많은 인근 주민들 고객들로부터 사랑받는 카페. 분위기도 좋아요. 현재 주인 일하지 않고 직원들로만 운영 중이어서 임금 지출이 매우 낮아요 (\$7,000/주) 카페 운영 경력 새 주인 부부 혹은 두 파트너 근무 경우 순익 좋고 안정적 비즈니스 입니다.
17	세탁소 - 드라이클리닝 (Winston Hills 지역)	Price \$99,000 매출 \$5,000/주 순익 \$12,000/월	현 위치 40년 넘게 운영한 잘 알려진 세탁소입니다. 드라이클리닝 겸하고 있으며 기계들 (Nova 350E, Union Dry Cleaner Machine, Puff Iron, Boiler, Presses Table, Dry only Machine, Domestic Wasing machine, Spotting Table, Sewing Machine, Hemming Machine, Overlook Machine 등등 갖추고 있음. 인근 지역 경쟁업소 없고, 면적 45sqm의 적당한 크기의 업소.
18	매우 성업중인, 유명 한식/ 고깃집 레스토랑 (Inner west 지역) "특매물"	Price \$349,000 매출 \$29,500/주 순익 \$32,000/월	상호를 말하면 누구나 다 아는, 맛집으로 유명한 한식 BBQ 레스토랑입니다. 레스토랑, 카페 즐비한 먹거리 거리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 380sqm, 좌석 100석의 상당히 큰 규모의 레스토랑. 고객들 주로 자주 오는 단골손님들이며, 주류 라이선스 보유, 장기 임대, 매우 저렴한 임대료로 순익 높은 비즈니스. 가족 운영 혹은 부부 운영에 최상의 비즈니스. - 현주인 쿨링(일하지) 않고 관리만 하고 있어요.

“호주의 넓은 농장을 개발, 축산업으로 북한 식량문제 해결 모색해야...”

북한 '식량안보' 고민하는 동포 기업인 최웅규 대표, KBS 방송서 '통일시대 대비' 강조



농축산업 개발을 통해 일자리 마련 및 북한 식량위기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동포기업인 최웅규 대표(PIDAKOR P/L 사진)가 최근 한국방송공사(KBS)의 북한 전문 프로그램 '남북의 창'에서 "미래 통일시대를 대비한 북한 식량 준비 계획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사진: 해당 프로그램 영상 캡처

흰 쌀밥에 고깃국. 이는 김일성 주석 때부터 강조해 온 북한의 영원한 '경제 목표'이다. 북한은 이 목표를 위해 과학 축산을 장려하고 있지만, 축산물 생산 부족은 여전히 양질의 단백질 공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국 통계청이 발표한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북한 주

민 1인당 하루 단백질 공급량은 한국 국민의 48%에 머물렀고 지방은 25%에 불과하다.

이런 가운데 지난 30년 넘게 시드니를 기반으로 농축산 회사를 운영하며 또한 북한의 식량안보 해결을 위해 대북 사업을 진행해 온 'PIDAKOR P/L'의 최웅규 대표가 최근 한국방송공사(KBS) '남북의 창' 프로그램에서 축산업으로 북한을 지원하고 식량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한국 내 몇몇 인사들과 함께 미래 통일시대 대비의 필요성과 사전 대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북의 창' 프로그램은 남북 관계 현안을 심층 분석하고 북한의 이모저모를 생생한 영상과 함께 전해주는 공영방송 KBS의 북한 전문 프로그램이다.

이번 방송에서 최 대표는 축산 연구가인 진주산업대학교 송민영 명예교수, 경남에서 축산농장을 운영하는 최규범씨 등과 만나 북

한 주민들의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인 축산자원 육성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통일 시대를 대비하는 노력을 보여주었다. 특히 이번 '남북의 창' 프로그램은 호주 현지에서 축산 전문가로 활동하며 대북 지원 사업을 전개하는 최 대표의 활동과 계획을 집중 조명했다.

최 대표는 5차례의 북한 방문을 통해 북 당국과 육가공 사업에 대한 논의하고 구체적인 추진 단계까지 이어졌으나 2017년 유엔의 대북제재로 중단해야 했던 아쉬움, 그럼에도 호주 노던 테러토리(Northern Territory)에 약 15억 평에 이르는 드넓은 부지를 축산 농장으로 개발해 식량자원 확보는 물론 북한 이탈 주민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계획을 설명했다. 또한 이곳에서 사육한 호주 육우를 북한에서 가공해 일정 부분은 수출하여 회사 수입으로 삼고, 나머지 육류 및 가공 과정에서 나온 갖가

지 부산물을 북한 주민들에게 제공,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안도 밝혔다.

'남북의 창' 프로그램 진행자는 이 같은 최 대표의 의지에 대해 "남북관계는 여전히 냉랭하지만 최 대표는 남한과 호주를 오가며 미완의 꿈을 조금씩 채워 나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건축설계가 본업이었던 최 대표는 지난 1991년 투자이민을 통해 호주로 이주하여 시드니에 정착한 뒤에는 농축산업에 뛰어들었고, 7년 넘게 직접 축산농장을 운영하기도 했다. 이후 농업 컨설턴트로 한국 관련 기관에 호주 현지 농업 및 투자정보 등을 제공해 왔으며, 갈수록 심각해지는 북한 식량문제 및 통일 시대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의 대비를 강조해 왔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1800 858 858

우리 모두의 삶을 바꾼 번호

도박은 도박을 하는 사람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과 가까운 사람이 도박을 너무 자주하거나,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쓰거나, 친구와 가족과의 시간을 놓친다면 여러분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도박이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는 **GambleAware**로 연락하셔서 한국어로 도움을 받으세요. 비밀이 보장되며, 무료입니다.

또는 gambleaware.nsw.gov.au/korean을 방문하세요.

GambleAware 



PIDAKOR CONSTRUCTION REAL ESTATE AGENT

FOR
SALE

칼링포드 최적의 입지조건!

Suites 9 835-839 Pennant Hills Road Carlingford 2118



사무실 공간: 72.5m2 | 탕비실(주방) 1, 창고, 주차장 2

부동산 용도: 변호사, 병원, 회계사, 음악, 미술학원, 부동산업, 한의원 등

페난트힐 대로변에 있어 광고효과 최고 좋은 입지적인 조건.

장기 렌트 계약으로 안정적인 투자 가치가 있으며 매입자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사용가능

Adam Chen 0414 879 393 | 최웅규 0499 771 841

요즘 65세 이상 2중국적에 따라서 한국에서 사시거나 자주 다니는 분들을 위한 희소식



피다코는 삼성 경매 연구소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투자 원금 보장과 수익을 100% 보장합니다.

대상자

1. 오랫동안 한국에 못 가서 한국 내 사정을 잘 모르는 분.
2. 한국에 부동산이 있는데 어떻게 처분하거나 관리를 하실 줄 모르는 분
3. 한국 생활비를 위하여 안전 투자를 원하는 분

이중국적 신청에 대한 상담 무료로 하여드립니다. 투자 상담 예약하시면 2중 국적 신청 절차에 대하여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립니다.



피다코는 한국 부동산 투자 전문 회사인 "삼성경매 연구소"와 MOU를 맺고 호주와 한국 부동산을 통하여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보장하는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호주에서 유일하게 건축공사와 부동산을 하나로 묶어 투자개발 사업을 하는 면허업체 PIDAKOR

PIDAKOR 대표 주요경력 서울시 교육위원회 시설과 설계,건축,감독 20년 그리고 건축 시행사 대표 12년
Corporation Licence (종합 부동산 면허):10108823 연락처 : +61) 0499 771 841 / 한국 연락처 : +82) 010 6276 6733



SUITE 9 835-839 Pennant Hills Road Calingford 2118 NSW

info@pidakor.com.au | www.pidakor.com.au | 0499 771 841

가언(假言)과 진언(眞言)사이

새로운 나를 낳고 싶다

“너도 옆머리에 서리가 하얗구나”
” 염색 안 하면 별 수 없어요”

카카오톡으로 내 사진을 본 막내 이모의 ‘탄식’ 메시지에 ‘염색’으로 둘러댔다. 아직도 철이 없어 보이는 조카의 머리가 희게 변한 게 놀랄 일이었나 보다. 요즘은 거울 보기가 꺼려진다. 어릴 때 동네에서 보았던 추레한 아저씨가 나를 멀뚱거리며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60대 청춘’ 이라고 인생 후반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모작을 넘어 삼모작 시대라고 열변을 토하기도 한다. 지난 시절을 돌이켜 보면 앞으로 50년이 남

았다고 한들 뭐가 그리 다를까 싶다. 눈 한 번 감았다 뜨니 어느새 중년이다. 어릴 때는 그토록 느리 느릿 간다고 불평했던 시간이 아닌가? 덧없이 흘러간 세월은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갈무리하지 못한 인생이다. 성공이든 실패든 시간은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 그 흔적을 붙잡고 나만의 고유한 의미의 집을 짓는 것은 오롯이 나의 의무이다.

현존하는 존재자로서 나를 만나는 일은 과거의 나를 찾아 떠나는 여정으로 이어졌다. 기억이 있는 나이까지 거슬러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 그 과정에서 현재의 나는 수많은 시점을 살아간 무수히 많은

과거의 나를 만났다. 둘 사이에 쉴 새 없이 대화가 오갔다.

“그때 넌 왜 그런 결정을 했니? 바보야! 바보!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 줄 아 니?... 그건 참 잘 했어. 어쩔 어린 나인데도 그렇게 열심히 살았니?... 슬프고 힘들었겠다. 어떻게 견뎌 냈니?”

“너에겐 미안한 게 많아. 내가 바보짓 자주 했지. 설마 네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을 줄 몰랐어. ...별 생각 없이 했는데 너에게 칭찬까지 받다니 기쁘네. 어릴 때 나만큼 기특하게 공부한 사람 별로 없어... 그래 죽고 싶었는데 미래의 네 생각하며 참았어.”

과거의 오류와 현재의 참담함은 나를 나와의 싸움으로 몰아붙였다. 후회하면서 한심해서 어쩔 줄 몰랐다. 저마다 상대방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같이 비난하며 싸우다가 나중엔 서로가 불쌍해

하나가 된 현재의 나와 과거의 나는 첫 아이를 기다리는 젊은 부부처럼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미래의 나에게 희망을 걸어 보기로 했다. 50대 중반 아저씨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될 그 아이의 운명을 안타까워하지 않기로 했다.

부둥켜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마음에 들지 않고 떨어져 버리고 싶어도 현재의 나와 과거의 나는 같은 나였다. 그 사실을 싫어할 수 있으나 한순간도 부정할 수 없었다.

하나가 된 현재의 나와 과거의 나는 첫 아이를 기다리는 젊은 부부처럼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미래의 나에게 희망을 걸어 보기로 했다. 50대 중반 아저씨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될 그 아이의 운명을 안타까워하지 않기로 했다. 옆머리가 하얗게 변했으나 아직 정수리에는 시커먼 머리털이 무성하다. 힘에 부치는 일이 많아져도 열심히 운동하면 나름대로 활력을 유지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나는 여전히 하루하루를 새로운 시간으로 맞이할 수 있다.

현재의 나는 과거의 나와 손잡고 역사의 퍼즐 한 조각을 이루는 미래의 나를 낳아 키우고 싶다.



정동철 / 변호사

...덧없이 흘러간 세월은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갈무리하지 못한 인생이다. 성공이든 실패든 시간은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 그 흔적을 붙잡고 나만의 고유한 의미의 집을 짓는 것은 오롯이 나의 의무이다.

다이아몬드, 진주 도매업체
J.won Jewellery
제이원 보석

www.jwondiamond.com.au

9763 1355 스트라스필드 플라자 1층 8호
(플라자안 우체국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타세요)

Open Hour Mon-Fri 10pm~6pm
Sat 10am~3pm

"백세까지 호호탕탕"

65세이상 시니어분들께 희소식 !!

호주 연방정부 지원 <백호대학> 2024 건강/복지 프로그램

- ✓ 1년 동안 전문의료진들이 정기적으로 건강을 관리해 드립니다.
- ✓ 여러가지 취미활동을 즐기며 방학때는 단체여행도 함께 합니다.
- ✓ 야외활동, 문화생활 체험, 건강스포츠, 월별/학기별 이벤트, 연말 대잔치.
- ✓ 웰빙센터에서 황토찜질방, 자연산책, 수영, 테니스, 영화감상 등 가능.
- ✓ 몸이나 거동이 불편하실 경우 픽업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 ✓ 노인연금(pension)을 받으시거나, 재산이 많은 분도 입학이 가능합니다.

백호대학 Term 2 오리엔테이션

매주 화요일 버우드 RSL Club (96 Shaftesbury Rd), 10am - 2pm (4월 30일만 10am-1pm)

기존의 백호대학 학생들과 시니어 프로그램에 관심있으신 모든 시니어분들, 노인 케어 Planner와 함께 전문적이고 행복한 시니어 라이프를 백호대학에서 함께합니다.

백호대학 어버이날 행사

일시 : 2024.5월 7일 (화요일) 10am - 2pm

호주는 Mother's Day 한국은 어버이날 행복한 하루를 선물합니다
기존의 학생이 아니시면 반드시 전화로 예약해 주세요.

백호대학 전문간호 홈 케어 서비스

- 1:1 개별 상담 및 케어 프로그램을 정기 스케줄로 운영
- 보호자/가족들과의 정기 미팅을 통해 고객의 안전, 복지, 만족도 보장
- 전문 서포트 워커들에 의한 철저하고 친절한 서비스
- 회계사를 통한 안전한 펀드 관리
- 먼저 상담을 거쳐 서비스동의서를 작성한 후 펀드관리 방식을 선택하고 개별 프로그램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서포트워커들을 통해 1:1 개별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백호대학>은 호주 비영리 복지단체 <GCMA 마이리버랜드> 소속으로 한인언론사 <한국신문>에서 주관하는 신개념 시니어 복지학교입니다. 한인 시니어분들의 건강과 복지를 적극 지원하는 <백호대학> 에 오셔서 삶의 활력과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세요.

Term2 시작

5월 7일 - 7월 9일

등록문의 0425 282 697 (이기태)

3뷰티 건강증진센터

YOU BECOME HAPPIER & HEALTHIER



▶ 캔트허스트 소재 3Beauty 건강증진 센터는

전문 건강/의료팀이 각 개인별로 맞춤 건강프로그램을 설계해 드립니다. 의료 서비스부터 건강관리 프로그램까지 원스톱으로 편안하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비대면 진료/서비스 가능)

▶ 3Beauty 산후조리원 프리미엄 케어 서비스

최고의 산후 케어 서비스로 산모와 아기의 건강한 출발을 준비합니다.

- 1) 경력 산부인과 간호사와 유아보호사가 함께 하며, 응급시 GP 와 연결하는 응급지원 시스템
- 2) 한의사 및 운동관리사가 처방하는 산후보약 및 산후 회복운동
- 3) 전문 바디관리사에 의한 식단관리 및 마사지 서비스
- 4) 프라이버시와 안전이 철저히 보장되는 독립 공간과 친절한 1:1 케어 서비스
- 5) 7천평 대지위에 잔디와 나무들로 조성된 자연 친화적 환경

▶ VVIP와 STANDARD Room Package

3뷰티 산후조리 서비스 Midwife 경력의 간호사가 함께하는 산후조리원 프리미엄 케어 서비스.
임신에서 출산까지 1:1 산전 산후 관리 (웹사이트 참조)

▶ 3Beauty 부대시설 편백나무 황토 찜질방 / 야외 수영장 / 테니스 코트 / 골프 퍼팅 & 벙커 존 / 산책코스

편백나무 향과 황토의 에너지, 거기에 원적외선으로 치료효과를 더한 황토 찜질방을 체험해 보세요.
몸의 온도를 1도 상승 시키는 황토 찜질방에서 깊이 전해지는 건강 에너지로 추운 시드니 겨울을 건강할 수 있습니다.
오픈 시간 :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토요일 오후 4시까지

홈 케어 받으시는 시니어 분들은 HCP 로 사용가능 /개인보험 치료마사지 가능 /사고 후유증 Claim 가능



3BEAUTY 건강증진센터

여성들을 위한 건강 프로젝트



1탄 : 유방암



유방암 수술하신 분들이나 유방암관련 질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환우분들을 위해 준비한 프로그램

5월 7일 (화요일) 시작

참가 비용 : 전화문의

제한인원 8명

개인별 1:1 맞춤 운동처방 식단관리
간호사 의료 점검 및 다양한 의료와
건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인여성들을 위한 정신건강 (호주 정부 지원 프로그램)

정말 네 마음을 말해줘 (미술 표현 심리)

매주 수요일 10:30AM ~ 13:30PM

참가인원 4명-8명

4주 프로그램

참가비 10불 (재료비 별도)

전문 미술 전공자가 함께하는 여성분들의 깊이 숨겨둔 감정과 마음을
표현하고 정서적으로 힐링을 경험하게 될 특별한 표현예술 프로그램에
여성분들을 초대합니다.





한 정신건강 관련 기구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호주의 정신건강 시스템은 많은 차이가 있으며 계속 실패하고 때로는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사진 : Unsplash / micheile henderson

▶4면에서 이어받음

이미 30년 전
폐쇄된 관련 기관들

이 비극적 사건은 국가 정신건강 시스템 문제를 부각시켰고, 정신질환을 안고 있는 사람들과 그 가족을 지원하는 충분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전국 정신과 의사 단체 'National Association of Practising Psychiatrists' (NAPP) 회장인 필립 모리스(Philip Morris) 박사는 30년 전 정신건강 기관이 폐쇄되면서 관리 시스템 문제가 시작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로써 갑자기 몸이 좋지 않은 이들이 거리로 나갔고 가족들은 그들을 돌보아야 했으며 일부는 노숙자 보호소에 갇히거나 거친 노숙 생활을 했다. 또 다수의 정신건강 이상자들이 경찰에 체포됐다.

모리스 박사는 “이들에 대한 후속 치료가 되지 않았다”면서 “이 환자들은 소외됐고,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할 매우 불우한 집단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모리스 박사는 이번 본다이정선 쇼핑센터에서의 무차별 공격과 같은 사건 위험을 줄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지난 30~40년 동안 소외받아온 이 환자 집단에 대한 치료 수준을 향상시키고 그들에게 합당한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들은 지역사회 생산적이고 안전한 구성원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잡한 정신건강으로 인해 영향받는 이들을 대표하는 국가 기관 'SANE'은 “정신분열증 환자는 언론에 의해 ‘가장 낙인 찍힌’ (most stigmatised) 사람들이며, 폭력 범죄의 가해자보다는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다.

이 기구의 레이첼 그린(Rachel Green) 최고경영자는 각 주 및 연방 차원에

서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더 많은 지원금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제시하면서 “현재의 정신건강 시스템은 많은 차이가 있으며 계속 실패하고 때로는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들(정신질환 환자)은
우리 가족일 수 있다’

클레어 존스씨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녀의 또 다른 남자 형제는 응급 구조대원 일하고 있다. 그는 정신질환자의 칼부림 사건에 출동할 때마다 “하느님의 자비를 빌며, 이 사람이 우리 가족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존스씨의 남동생은 2년 전, ‘통제불능 상태’가 된 적이 있다. 당시 그녀는 이를 내내 브리즈번에서 시드니까지 모든 정신건강 지원 기관에 전화를 했었다. 하지만 그 어느 기관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했다.

존스씨는 남동생의 정신과 담당 의사에게 전화를 했고, 의사는 그녀에게 정신건강 진료소에 가 보라고 했다. 하지만 진료소에서는 담당 의사에게 전화하라는 말을 했다.

존스씨는 “남동생은, 자신은 물론 누구에게도 ‘즉각적으로’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여겨졌기에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정신분열증은 무엇?

모리스 박사에 따르면 정신분열증(schizophrenia)은 호주 인구의 약 1%에 영향을 미치는 만성 뇌 질환이다. 이의 증상에는 망상(delusions), 환각(hallucinations), 두서없는 말투(disorganised speech), 사고 장애, 동기 부족이 포함될 수 있다.

모리스 박사는 대마초, ‘아이스’ (ice. Crystal methamphetamine) 및 기타 각성제 등의 불법 약물이 정신분열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들은 사회적 활동 참여가 어려울 수 있으며, 연

구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관심을 표현함에도 정신분열증 환자는 다른 사람과 보내는 시간이 적고 외로움을 느낀다.

조엘 카우치는 온라인 데이트 사이트를 이용했고, 그의 소셜미디어에는 서핑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는 등 친구를 찾았던 흔적이 있다.

정신분열증 환자가 약물 치료를 중단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모리스 박사는 “환자의 대다수는 모니터링 되어야 하며 많은 이들은 장기간의 약물 치료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절대
이상한 사람이 아니다”

퀸즐랜드 정신건강위원회(Queensland Mental Health Commission)의 이반 프르코비치(Ivan Frkovic) 위원장은 본다이 정선 사건이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이들에게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영향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 사람의 끔찍한 행동이 일반적으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모든 이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그는 “정신분열증과 같은 심각하고 지속적인 정신 질환을 가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폭력적이지 않고 증상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치료와 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클레어 존스씨도 “그들(정신질환자) 모두가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녀는 “모든 정신건강 센터가 폐쇄되면서 가족들이 돌보도록 환자를 남겨 두었고, 이제 가족들은 지쳤다”는 말로 주변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전국 정신과 의사 단체 'National Association of Practising Psychiatrists'(NAPP) 회장인 필립 모리스(Philip Morris, 사진) 박사는 정신분열증 환자에 대한 치료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진 : National Association of Practising Psychiatrists



정신 건강 관련 전문가들은 환자들에게 합당한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로써 지역사회 생산적이고 안전한 구성원으로 남아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진 : Human Focus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Property & BUSINESS

FIELD & URBANITE
집 사기 좋은 시기? 바로 지금입니다.
Jenny 0403 316 467



26 APRIL 2024 1584

주택 보유자가 오래도록 거주하는 시드니의 'Hidden, Beautiful area'는...

부동산 매매 비율 낮은 교외지역은 Bidwill, 주택 보유 기간 최다는 Castle Cove

캐시 카오(Cathy Cao) 씨는 지난해, 광역시드니에서 매물로 나오는 주택이 가장 적은 교외 지역 중 하나인 로즈빌 체이스(Roseville Chase)에서 새 주택을 구입하게 된 것을 가장 큰 행운으로 여기고 있다.

그녀는 “가족을 위해 더 큰 규모의 주택을 원하면서 채스우드(Chatswood)에서 멀지 않은 교외지역에서 찾고 싶었다”면서 “또한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거주민들의

평판이 좋은 곳을 원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가 원하는 조건의 주택 매물은 찾기 힘들었다. 로즈빌 체이스에서 매물이 있다는 소식을 듣기 전까지, 그녀는 킬라라(Killara), 린필드(Lindfield), 로즈빌(Roseville) 등 더 인기 있고 주택가격도 더 높은 인근 지역의 매물을 보면서 6개월을 보냈다.

부동산 에이전트로 일하는 카오씨는 “로즈빌 체이스는 업그레이드를 하는

데 있어 완벽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이 교외 지역은 주택 구입을 고려하는 이들에게 덜 주목 받았기 때문”이라는 그녀는 “로즈빌 체이스는 내가 원하던 모든 조건을 충족하면서도 린필드, 로즈빌에 비해 부동산 가격은 다소 낮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카오씨를 만족하게 한 것은, 이 교외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이 이곳에 자리잡으면 최소 20년 이상을 거주한다는 점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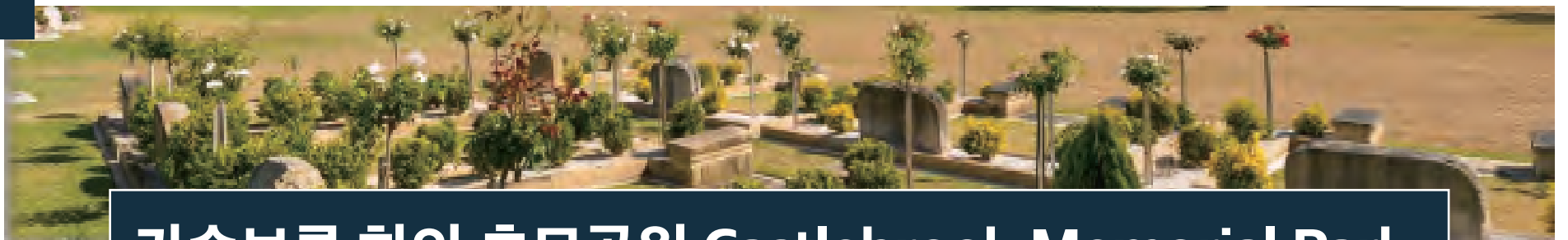
다. 그만큼 친절한 이웃과 거주 편의성이 좋다는 뜻이다. 그녀는 로즈빌 체이스에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된 것에 매우 행복해 하면서 “시드니 어퍼노스쇼어 지역(upper north shore region)에서 가장 아름다우며 숨겨진 교외지역(suburb) 중 하나”라고 소개했다.

로즈빌 체이스에서 새 주택을 갖게 된 것에 대해 “행운이었다”는 카오씨의 말은 실제 관련 데이터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부

동산 분석회사 ‘코어로직’(CoreLogic)의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2023년) 동안 이 교외 지역에 있는 주택 가운데 소유자가 바뀐 부동산은 2%에 불과하다. 그만큼 이곳에 주택을 마련한 이들은 오래도록 거주한다는 의미이다.

▶ 20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카슬브룩 한인 추모공원 Castlebrook Memorial Park

구입 후 관리비 및 사용 연장비가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영구히 사용가능



가족수목장 (리드컴 록우드)
 4인 \$23,000



가장 무난하게 인기많은 화장자리
 2인 \$17,000~18,000



수목장 2인 전망 좋은 자리
 \$12,000



가족묘 4인자리 (매장 화장 다 가능)
 \$74,500



일반 매장 자리 (위 아래 2사람 사용)
 \$10,210

영구보존 및 관리 | 가족묘 | 개인묘 | 다양한 화장묘 및 매장묘 판매

무이자 할부판매 * 전문 한국어 상담사 NO 관리비 NO 연장비 **홍지운 Sue Hong** 상담 문의

* 20프로 디파짓에 나머지 금액은 무이자 할부가능 매주 금요일 무료투어 전화 예약받습니다. **0450 396 337**



- 리드컴 Lidcombe
- 카슬부룩 (라우즈힐역 맞은편) Castlebrook
- 블랙타운 Blacktown
- 채스우드 Chatswood

▶19면에서 이어받음

이는 지난해 광역시드니 전체 부동산 매매 회전율(Sydney-wide turnover rate of properties) 4.6%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다.

코어로직의 관련 집계를 보면 이 비율(주택거래)이 가장 낮은 곳은 블랙타운 카운슬 지역에 있는 비드윌(Bidwill)로, 2023년 한 해 사이 부동산 거래 비율은 1.2%에 불과했다. 비드윌과 함께 밀러스 포인트(Millers Point, 2%), 브라이튼 르 상드(Brighton-Le-Sands, 2.3%), 나라위나(Narraweena, 2.4%), 라벤더 베이(Lavender Bay, 2.4%) 또한 낮은 거래비율을 보였다.

코어로직의 엘리자 오웬(Eliza Owen) 선임연구원은 “거주민의 낮은 이주율은 인기 교외지역임을 뜻한다”며 “이는 몇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그중에 따르면 그 하나는 주택 보유자의 거주 의지, 그리고 구매자의 높은 주택수요이다.

코어로직 데이터에 따르면 보니리그 헤이츠(Bonnyrigg Heights)와 밀러스 포인트(Millers Point)

를 포함해 지난해 낮은 매매 비율을 보인 교외지역은 실제 주택 소유자들의 오랜 거주기간과 겹친다. 올해 3월 분기까지 보니리그 헤이츠 및 밀러스 포인트에 주택을 보유한 이들의 중간 거주기간은 각각 18.7년, 15년이다. 또한 두 교외지역의 지난해 주택 매매 비율은 2% 미만이었다.

시드니에서 주택 소유자가 해당 주택을 가장 오래 보유한 교외지역은 카슬 코브(Castle Cove)와 데이빗슨(Davidson)으로, 중간 보유기간(median hold periods)은 각 21.3년이였다.

오웬 연구원은 수십 년 전, 젊은 베이비 부머(baby boom 세대)들이 이 교외지역에서 내집 마련을 했으며, 이제 자녀들이 독립해 나가고 빈 둥지(사용하지 않는 침실)가 늘어도 좀처럼 작은 주택으로 이주(downsizing)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거주 환경 및 편의성 등에서 인기 있지만 주택 구입자들 입장에서 진입하기 어려운 이런 교외지역은 주택의 잘못된 배치를 의미한다는 지적이다. 오웬 연구원은 “젊은 커플이 20년 넘게 4개 침실 주택에서 거주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며 “만약 그렇다면 노년층이 다운사이징을 할 주택이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런 한편 오웬 연구원은 일부 교외지역의 경우에는 ‘투기성 요인’으로 인해 소유자가 오랜 기간 부동산을 보유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가령 인프라 프로젝트 계획이 있지만 아주 더디게 진행되는 경우, 넓은 주택 부지를 갖고 있으며 이를 분할할 수 있다면 소유자가 더 오랜 기간, 해당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캐시 카오씨의 말처럼, 이 지역 기반의 부동산 중개회사 ‘Ray White Upper North Shore’의 제시카 카오(Jessica Cao, Cathy Cao씨와는 무관함) 에이전트는 로즈빌 체이스 지역에 대해 “다른 곳에 비해 예비 주택 구입자들에게 인지도는 낮지만 좋은 이웃과 편의시설 접근성 측면에서 주택 구입이 권장되는 교외지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은 드러나지 않는 것을 좋아한다”는 카오 에이전트는 “기차 노선을 따라 자리해 있으면서도 로즈빌, 킬라라, 린필드에 비해 가격이 다소 저렴한 편”이라고 덧붙였다.

그녀에 따르면 로즈빌 체이스에서 매물로 나오는 주택은 대부분 거주자가 사망했기 때문이거나 주택 규모를 축소(downsizing)하려는 이들의 보유 주택들이다.

한편 비드윌은 로즈빌 체이스와 유사하게 낮은 거래비율을 기록했지만, 이는 서부 지역에 자리해 있다는 점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지역 부동산 중개회사 ‘Ray White Diamantidis Group’의 피터 다이아만티디스(Peter Diamantidis) 에이전트는 “블랙타운 카운슬 구역의 작은 교외지역으로, M7 및 M2와 빠르게 연결되기에 노스시드니(North Sydney)까지 45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비드윌에 있는 그의 고객(판매를 의뢰한) 대다수는 은퇴하면서 퀸즐랜드 지역으로 이주한 다운사이저이며, 구입 고객은 첫 주택 구입자들이다. 다른 교외지역에 비해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내집 마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이아만티디스 에이전트는 “10명 중 8명은 처음으로 부동산 시장에 진입한 이들로, 이는 100만 달러 미만으로 구입 가능한 가격 적합성과 관련이 있다”며 “하지만 이곳에서 불과 3km

거리에 있는 마스든 파크(Marsden Park)에서는 그 가격으로 단독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약 600스퀘어 피트 부지를 가진 주택의 경우 65만 달러에서 75만 달러로 구입이 가능하다.

■ 주택 매매비율 낮은

시드니 교외지역

(Suburb : 매매 비율-2023년도)

- Bidwill : 1.2%
 - Alfords Point : 1.4%
 - Bonnyrigg Heights : 1.9%
 - Roseville Chase : 2.0%
 - Millers Point : 2.0%
 - Ramsgate Beach : 2.0%
 - Heckenberg : 2.0%
 - Angus : 2.1%
 - Mulgoa : 2.2%
 - Pagewood : 2.2%
 - Brighton-Le-Sands : 2.3%
 - Clemton Park : 2.4%
 - Narraweena : 2.4%
 - Wakeley : 2.4%
 - Lavender Bay : 2.4%
 - Hassall Grove : 2.5%
 - Sydney : 2.5%
 - Ashbury : 2.5%
 - Willoughby East : 2.5%
 - Woronora Heights : 2.5%
 - Mount Lewis : 2.5%
- Source : CoreLogic

■ 주택 보유 기간

최다 교외지역

(Suburb : 중간 보유 기간-2023년 12월 매각 부동산까지 집계. 단위-year)

- Castle Cove : 21.3
 - Davidson : 21.3
 - Bonnyrigg Heights : 18.7
 - Cecil Hills : 18.0
 - Cabarita : 17.1
 - Erskine Park : 16.7
 - North Turrumurra : 16.6
 - Glen Alpine : 16.3
 - Clontarf : 16.1
 - Belrose : 15.6
 - Abbotsbury : 15.4
 - Cheltenham : 15.3
 - Cherrybrook : 15.2
 - Longueville : 15.1
 - Millers Poin : 15.0
 - Wakeley : 14.9
 - Killarney Heights : 14.8
 - Wattle Grove : 14.7
 - Prairiewood : 14.6
 - Busby : 14.5
- Source : CoreLogic



FOR LEASE




주소: 1a Grace ave. Beecroft NSW 2119

🛏️ 4 + Study 1 🚗 3 \$990/week

- 레노베이션된 2층집 하우스
- 넓은 정원과 cul-de-sac
- 좋은학군, 버스정류장 기차역에 인접
- 가족들 거주에 아주 좋은 환경
- 가까운거리에 쇼핑센터
(5분 거리에 Coles, Beecroft, Carlingford 쇼핑센터)
- 바로 입주가능

인스펙션: 토요일 (오전 11:00-11:30) 프라이빗 인스펙션
수요일 (오후 12:30-12:45) 0416 228 654

Welrealty@hotmail.com (02)9643-8330

Lidcombe Central

A PARKSIDE VILLAGE COMMUNITY



AIO REAL ESTATE
공식 분양 대행사

REGISTER YOUR INTEREST
Tower B - Banksia



Lidcombe Central

- 위치 : 4 - 12 Railway St Lidcombe NSW 2141
- 건축 개요 : 아파트 3개동 301세대
(Tower A: 13층, B: 17층, C: 15층)
Tower B - 125 units 분양 예정
(1 Bed 62 units, 2 Bed 31 units, 3 Bed 32 units)
- 착공 2024년 2월 • 완공 : 2025년 연말 예정
- Display : 6 Raphael Street Lidcombe NSW 2141



Amy

0425 544 030



Caden

0410 237 800



John

0430 235 341



Lawrence

0405 329 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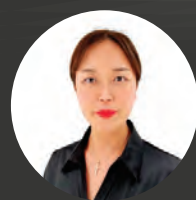
Jennifer

0439 058 058



Patrick

0432 632 876



Sun

0432 179 787



James

0451 665 007

위험 수준 상태의 경제 상황... “기준금리 변화, 결정적 영향 미칠 것”

장기간의 과도한 인플레이션-가계소비 급락 가능성 사이의 절묘한 균형 상태
RBA 이사회, 가계 모기지 상환 가능성-고용시장 변화-세계 경제 영향 살펴야

호주 경제가 위험한 칼끝에 놓일 수 있다는 경고이다. 장기간 이어진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과 소비 지출이 억제된 상황 사이에서 아직은 절묘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침체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 중앙은행(RBA)은 지난달(3월) 통화정책 회의에서 지난해 11월 인상했던 4.35%의 기준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으며, ‘추가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이전의 경고와 달리 ‘(일단은) 향후 이자율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통화정책 후 미디어 브리핑에서 RBA는 인플레이션이 예상기간 내 확실하게 하락할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고 말한 것이다.

올해부터 통화정책 일정(이전에는 매월 첫 주 화요일)이 변경됨에 따라 RBA 이사회 회의는 3월에 이어 다음 회의는 5월 6-7일(월-화요일) 예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RBA가 우려하는 사항, 다음 달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이사회가 면밀히 지켜볼 사항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듯하다.

■ 각 가계의 모기지 및

기타 부채는 감당 가능할까

높은 이자율로 인해 담보대출(mortgage)을 안고 있는 대다수 가계가 매월 수천 달러를 추가로 지불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는 매우 중요한 관심사이다.

지금까지 RBA는 상승한 금리, 높은 인플레이션, 늘어난 세금으로 인해 약 2년간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생활비 부담을 인정하면서도 가계부채 문제를 조심스럽게 낙관해 왔다.

지난달 이사회 성명은 “대부분 가계가 여전히 부채를 상환하고 필수 품목 비용을 감당할 수 있으며,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지속되는



장기간의 높은 인플레이션과 소비지출 감소로 호주 경제가 위험 상황에 이른 가운데 RBA는 다음 달(5월)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여러 경제 관련 상황과 지표를 주시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통화정책 회의를 마친 후 미디어 브리핑에서 RBA 이자율 결정(이전 금리 유지) 배경을 설명하는 미셸 볼록(Michelle Bullock) 총재. 사진 : Nine Network 방송 화면 캡처



올 2월, 임금상승률은 거의 3년 만에 처음으로 인플레이션 증가를 넘어섰지만 RBA는 각 가계가 현금을 조금 더 확보한다 해도 예상대로 소비를 늘리지 않을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사진은 시드니의 한 대형 슈퍼마켓. 사진 : Nine Network 방송 화면 캡처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이는(부채감당 수준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가계 예산에 대한 큰 그림이며, 일부는 상당히 악화된 상황이다. 현재까지 부채상환 연체율은 낮은 수준을 보이며, 각 은행도 이 부분을 주시하고 있으나 아직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으로 알려져 있다.

■ 인플레이션 수치, 더 오래, 높게 유지될까

RBA 이사회가 인플레이션 전망을 수정한 지난 3월 이전에는 아무

런 데이터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그 전망은 내년 하반기까지 2~3%의 목표범위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인플레이션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으며 각 가계가 상당한 회복력이 있기에 RBA 이사회는 기준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예측에는 위험이 있으며, 그중 하나는 물가 수치가 예상보다 더디게 하락한다는 게 문제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보험, 에너지 요금, 의료 및 교육을 포함한 서비스 품목 인플레이션이다. 보험가격은 지속적으로 빠른 상승을 보였다. 최근 월간 인플레이션 수치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보험료 인플레이션은 16.5% 증가했다.

인플레이션을 더 오랫동안 높게 유지하게 만드는 다른 요인으로는 생산성 증가 둔화와 예상보다 길게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는 분야가 있다.

■ 임금 상승하면
가계지출도 늘어날까
수요 및 공급 문제와 관련하여

RBA는 가계 지출이 예상대로 회복되지 않을 경우 또다른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가계재정 압박과 실질 가처분소득 감소로 가계지출은 매우 부진했다.

임금상승률이 회복되고 2월에는 거의 3년 만에 처음으로 인플레이션 증가를 넘어섰지만 RBA는 각 가계가 현금을 조금 더 확보한다 해도 예상대로 소비를 늘리지 않을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결국 RBA 이사회는 현 단계에서의 이 같은 위험과 인플레이션이 장기간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균등하게 균형을 이루는 상태로 보는 것이다.

■ 고용시장, 둔화되고 있다

RBA는 인플레이션을 보다 정서적 수준으로 낮추고 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용시장을 더욱 둔화시켜야 한다. 하지만 가능한 더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유지하기를 원하므로 RBA는 모든 분야의 노동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올해 1월 실업률은 4.1%까지 올랐지만 RBA 이사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여건은 지속되는 완전고용과 목표 인플레이션에 비해 다소 타이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 세계 경제 상황이 호주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주요 국가의 경제 상황이 향후 몇 달 동안 호주 경제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 이들 국가의 건전성은 호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RBA는 해외 상황을 주시하는 것이다.

RBA는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는 인플레이션이 완만하게 상승했고 상품과 서비스 가격 인플레이션이 고르지 못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한다.

중국 경제는 특히 주택시장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기에 더욱 면밀히 모니터링 되었다. 중국은 호주의 최대 양자무역 파트너이기에 RBA 이사회는 철광석 가격에 부담을 주고 수출업체의 소득을 감소시키는 철강 수요 전망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 ABC SEAMLESS \$

거터(Gutter, 지붕 홈통) 전문 할인점
거터에 관한 모든 것, 저희에게 맡기세요!!!

25년 이상의 풍부한 경력
월등한 가격 경쟁력

지붕 홈통(Roof gutter), 처마(Leafguard),
금속제 지붕(Metal Roofs) 및 지붕 보수

무료견적 **TEL: 02 9748 3022**

WEB: www.abcseamless.com.au | E-MAIL: abc@abcseamless.com.au

NOW 20% 할인!



PROJECT MARKETING
HOUSE AND LAND PACKAGE
SALES AND AUCTION
PROPERTY MANAGEMENT

Where Dreams
Come Home

02 9884 7811
503, 7 Railway st, Chatswood

집을 팔고자 하시는 분들!! 용자 때문에 고민이 많으십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맡겨 주세요! 빠른 시일 내에 좋은 가격에 팔아 드립니다!



부자 되는 부동산 세미나

몰입과 선택으로 부동산 투자하기, 어떻게 하면 투자에 성공할까?

일시: 2024년 4월 27일 토요일 저녁 6시
장소: 503, 7 Railway St, Chatswood NSW 2067
준비물: 부담없는 마음
내용: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

맛있는 저녁, 다과 및 차가 준비 되어있습니다. 장소가
제한적이니 사전예약 바랍니다.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드립니다.
예약문의 : Jenny 0403 316 467

3만 불로 라우즈힐에 방 4-5개가 있는 이층집 사기!

NEW



Price : \$1mils~

22/40-50 Union Rd Penrith NSW 2750



SOLD

- 북층으로 이루어진 펜리스 중심가 아파트
- 역과 쇼핑센터는 물론 공항과 학교가 근접해 있어 무척 편리
- 관리비가 싸서 투자하거나 거주하기에 적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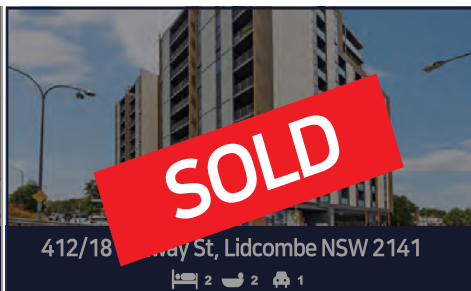
Price : \$569,000 - \$599,000



SOLD

1106/1108 Blackyard Blvd, Lidcombe 2141
🛏️ 3 🚿 2 🚻 1 (3/2/1)

- 올림픽 밖에 위치한 방 3개의 깔끔한 아파트
- 공원과 기차역, 버스정류장과 많은 엔터테인먼트 공간이 가까이에 위치
- 아파트 출입문 바로 옆에 공원처럼 꾸며진 바비큐 공간



SOLD

412/18 Railway St, Lidcombe NSW 2141
🛏️ 2 🚿 2 🚻 1

- 거의 새 것같은 햇살이 가득한 북향의 도보 1분 거리의 초역세권 아파트
- 올림픽 파크 골프장, 쇼핑센터와 상점들이 근접거리에 있어 렌트가 잘 나가는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유닛
- 한인들의 중심지인 리드컴에서도 중심가인 곳에 위치



SOLD

2/2 Railway St, Ryde NSW 2112
🛏️ 1 🚿 1 🚻 1

- 역과 학교, 강가와 상점들이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도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한 꿈의 터전
- 79 sm2의 사이즈가 큰 방 1개와 2nd room 사이즈의 스테디, 널찍한 발코니
- 첫주택구매자가 살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이면서 렌트가 잘되는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유닛



SOLD

323/325 Koorine St, Ermington
🛏️ 1 🚿 1 🚻 2

- Water Front, 공원, 산책코스로 이어지는 고급 힐링 주거 공간
- Total 129m2, internal 88m2로 2bed 보다 더 큰 공간
- 2개의 주차공간이 있어 2대 차를 보유한 커플과 가족에게 최상의 기회



Jenny Cho

Licenced Agent/LREA 20134299

Mob: 0403 316 467

Email: jenny.fieldandurbanite@gmail.com

FIELD & URBANITE

Best choice for entertainment

INSIDE Magazine

26 April 2024

'선한목자 그리스도 교회'에서의 '폭동' 군중은 누구... A3면

'Bondi Junction massacre'로 호주의 '정신건강 대비부재' ... A4면



호주 지리 상식... Western Australia에 있는 또 하나의 시간대는 어디?

놀라보 평원 상의 일정 구역, 'Eucla time'으로 불리는 'Central Western Time' 존재



서부호주(Western Australia) 주에 두 개의 시간대(time zone)이 있다는 것을 아는 이들을 그리 많지 않은 듯하다. WA 동쪽, South Australia와의 경계 지점 일정 구역에는 Central Western Time Zone(CWT)이 있어 WA 나머지 지역과 45분의 시간차가 생긴다. 사진 : ABC 방송



중서부 시간대(Australian Central Western Standard Time. CWT)를 대략적으로 표시한 지도. Google Maps

호주에는 다섯 개의 시간대가 있다. Australian Eastern Standard Time(AEST. Daylight Saving을 기간에는 Australian Eastern Daylight Time/AEDT라 칭함), Australian Western Standard Time(AWST. 동부 시간보다 2시간 늦음, WA 주는 Daylight Saving을 시행하지 않으므로 동부 주의 이 시기, 즉

WEDT 시간으로는 3시간 차이), Norfolk Island Daylight Time(동부 시간보다 1시간 빠름), Christmas Island Time(동부 시간보다 4시간 늦음), 그리고 Australian Central Standard Time(동부 시간보다 30분 늦음)이 그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AWST이다. 이 타임존(time zone)의 동쪽에 45

분의 차이가 있는 또 하나의 시간대인 중서부 시간대(Central Western Time Zone. CWT)가 있는데, 이로 인해 서부호주(Western Australia)에 두 개의 시간대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CWT는 종종 호주 방송 퀴즈 프로그램에서 참가자에게 제시되는 문제(question)이기도 하다.

Central Standard(또는 Daylight) Time Zone과 Australian Western Standard Time Zone 사이의 시간대인 중서부 시간대(CWT)는 서부호주 카이구나(Caiguna. 남부호주와 서부호주 경계 지역에 펼쳐진 Nullarbor Plain의, Eyre Highway 상에 있는 로드하우스. 거주인구는 4명이다) 인근에서 남부호주(South Australia) 주 경계가 가까이 있는 유클라(Eucla, WA. SA와의 경계에서 서쪽으로 11km 지점)까지의 일부 구역을 포함한다. 이 때문에 이곳의 다른 시간을 'Eucla time' 이라는 애칭으로 부르기도 한다.

WA와 SA를 가르는 주 경계 사무소(border checkpoint)에는 애들레이드(Adelaide, SA), 퍼스(Perth, WA), 그리고 중서부 시간대, 즉 유클라 타임을 보여주는 세 개의 시계가 있다.

유클라 시간은 WA의 나머지 지역보다 45분이 빠르다. 또 SA 시간에 비해서는 45분이 느리다. SA는 NSW, 빅토리아(Victoria) 주 등과 함께 Daylight Saving을 시행하므로, 이 기간(매년 10월 첫 주 일요일 오전 2시부터 4월 첫 주 일요일 오전 3시 사이)에는 SA보다 1시간 45분이 늦는 셈이다.

WA와 SA 주 경계 사무소에서 약 11km를 가면 만나는 유클라

마을의 모텔('Eucla Motel') 일 구에도 세 개의 시계가 중부시간 및 서부, 중서부 시간을 알려준다. 이 모텔을 운영하는 라사 파투피스(Rasa Patupis)씨는 유클라 시간대에 대해 "퍼스와 애들레이드 중간에 위치해 있기에 이해가 되며, 태양의 움직임에 맞춘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녀는 "이곳에 텔스트라(Telstra) 전신국 타워가 있지만 퍼스 시간에 맞춰져 있으므로 수동으로 유클라 시간으로 변환하지 않는 한 휴대전화의 시간 알림도 퍼스 시간으로 작동된다"며 "이로 인해 이곳을 여행하는 이들이 약간 혼란스러움을 느끼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파투피스씨의 말처럼 놀라보 평원을 지나는 일부 여행자들은 시간 변화에 어리둥절하곤 한다. NSW 주 헌터벨리(Hunter Valley)에서 퍼스까지 자동차 여행을 하던 에바(Eva)씨는 점심 식사를 위해 유클라에 차를 세웠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보니 중서부 시간이 아닌, 자동으로 WA 시간에 맞춰 표시되어 있었다. 그녀는 "유클라의 시간이 다른지 몰랐다"며 "사실 이는 어리석은 시간 구분"이라고 말했다.

에바씨와는 반대 방향, 퍼스에서 동쪽으로 여행 중인 롭(Rob)씨는 가족과 함께 유클라 근처에서 밤을 보냈다.

▶ 25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캔터베리 뱅스타운 카운슬, 첫 'Child and Family Expo' 마련

자녀 취향 고려한 조기학습센터 선택-입학 준비-재정지원기관 소개 등 내용



CB City가 자녀의 학교 입학에 앞둔 부모들에게 다양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자 첫 번째 'Child and Family Expo'를 마련했다. 사진은 이번 엑스포 이미지. 사진: CB City

자녀 육아는 행복과 성취의 시간인 반면 또한 한순간도 안심할 수 없는 돌봄의 연속이며 끝없는 질문의 시간이기도 하다. 아울러 아이가 자라면서 각 재능이나 성격에 맞는 조기 학습센터를 선택하는 문제, 학령기가 되어가면서 준비해야 할 것들, 필요시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인지 등이 궁금할 수 있다.

캔터베리 뱅스타운 카운슬(Canterbury Bankstown Council)이 자녀를 가진 부모들의 이 같은 궁금증을 해결해 주기 위한 첫 번째 'Child and Family

Expo' 를 마련했다.

이달 30일(화), 5세 이하 아이를 둔 부모, 조부모 및 보호자를 위한 이번 행사에서는 아동 발달, 가족 지원 및 복지 등 최신 정보를 무료로 제공한다.

CB City의 빌랄 엘-하예크(Bilal El-Hayek) 시장은 예비 학부모, 새로운 부모와 보호자들이 자녀를 위한 어떤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할 것을 권장했다. 시장은 "젊은 가족들에게 있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놀라운 기쁨의 시간이지만 동시에 힘들고 답할 수 없는 질문들로 가득 차 있

을 수 있다"면서 "나 또한 네 아이의 아버지로서 아이들과 가족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 여러 정보를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 시장은 CB City가 마련한 이번 엑스포에서는 정부 관계자, 교육 업계 전문가와 대화하고 여러분 가족을 위한 최신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덧붙였다.

이번 'Child and Family Expo'는 4월 30일(화)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30분까지 뱅스타운 소재 Bryan Brown Theatre(Corner of Rickard and Chapel Roads, 80 Rickard Rd, Bankstown)에서 개최된다.

이번 엑스포는 CB City의 가족 및 건강 서비스 관련, NSW 주 보건부(NSW Health) 관계자의 강연으로 시작되며 이어 가족 돌봄과 함께 스스로를 케어하는 'Creating Links' 시간이 이어진다. 또한 CB City의 공공도서관 관계자가 자녀에게 책을 읽어주는 것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Koorana Child and Family

Services'에서는 해당 지역사회 놀이그룹 정보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NSW 교육부에서는 자녀의 학교 입학에 앞둔 부모들에 대한 조언의 시간을 마련하며 'Services Australia'에서는 자녀를 가질 때의 재정적 지원에 대해 정보를 제공한다.

CB City가 마련한 이번 첫 엑스포는 부모와 동행한 아이들을 위한 무료 페이스 페인팅(face painting), 마술 쇼 등을 선사하는 가족 친화적 이벤트이다.

이번 엑스포 참석을 원하는 부모들은 필수적으로 등록을 해야 하며, 당일 행사장에 먼저 도착하는 200명의 부모에게는 5달러의 커피 바우처를 제공한다. 전체 프로그램 확인 및 참가 등록은 카운슬 웹사이트 해당 페이지(cb.city/FamilyExpo)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CWT는 놀라보 평원(Nullarbor Plain)의 카이구나(Caiguna, WA)에서 동쪽으로 SA 경계 가까이에 있는 유클라(Eucla) 사이의 구역을 포함하는데, 이로 인해 CWT는 'Eucla time'이라는 애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사진은 유클라 마을의 'Eucla Motel'에 걸려 있는 시계들. 사진: ABC 방송

▶ 24면에서 이어받음

"에어 하이웨이 상의 한 표지판에서 45분 앞당겨 시계를 조정

하라는 알림을 보았다"는 그는 "우리 모두 시간을 바꾸어두지 않았지만,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 가족 중 아침에 가장 일찍 일어나는 아들의 시계만 앞당겨 놓

았다"며 "여기서 한 10분을 달리면 SA 주로 접어드는데, 그러면 아들의 시계를 45분 앞으로 다시 바꾸어 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클라 시간으로 인해 혼란을 겪는 이들은 유클라 거주민도 마찬가지이다. 사실 이곳에 사는 40여 명의 주민 가운데 약 절반만이 '유클라 시간'을 따른다. 이 때문에 누군가와 저녁 약속을 하게 되면 서로가 시간을 다르게 생각하여 제시간에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곳 경찰서 프론트 데스크에서 일하는 자원봉사 응급서비스 코디네이터인 시몬 코클린(Simone Conklin)씨는 "유클라 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모든 것을 혼란스럽게 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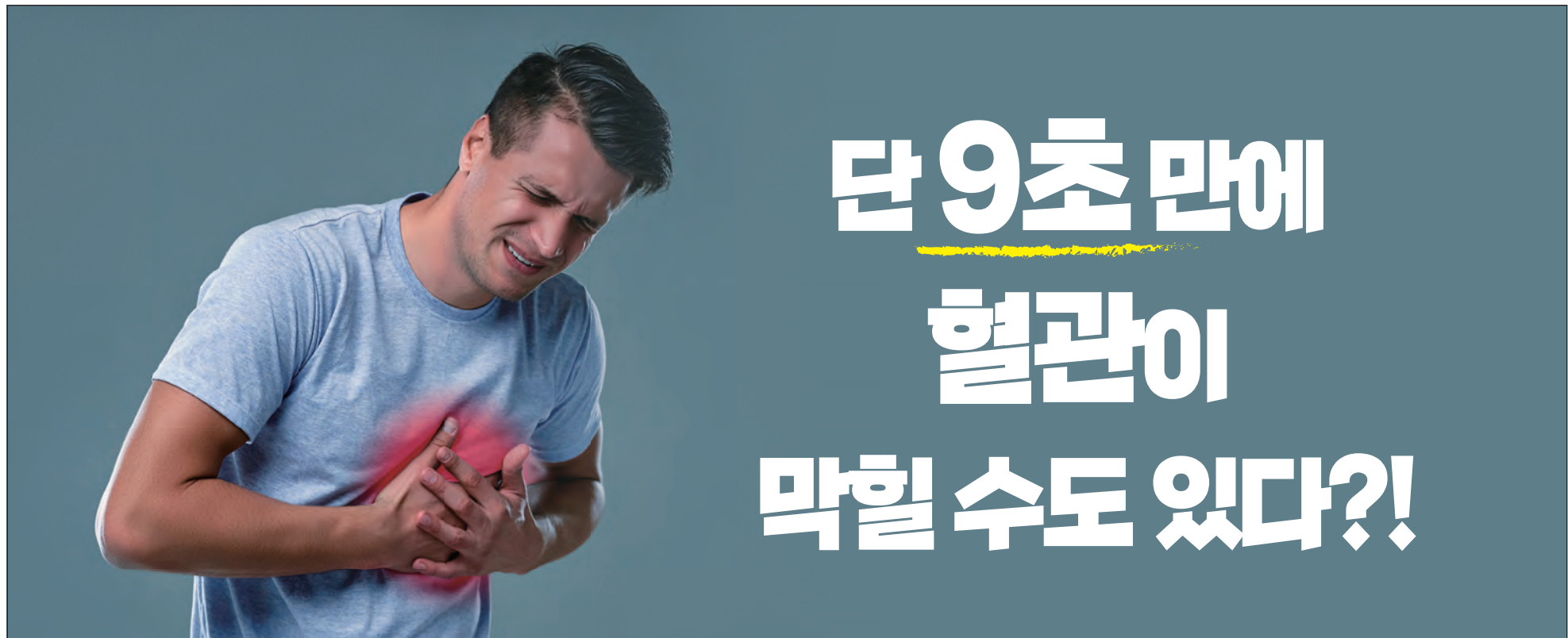
유클라와 서쪽 발라도니아(Balladonia) 사이에 위치한 양목장 'Arubbidy Station' (Central Western Time Zone에 속함)은

시간을 단순화하고자 WA 시간에 맞춰 업무를 진행한다.

이 목장 소유자인 매튜 루이스(Matthew Lewis)씨는 "(동쪽에서) 카이구라를 지나면 시간이 45분 뒤로 이동한다고 도로 표지판의 안내문이 있는데, 이 구역을 벗어나면 1시간 차이기에 WA 시간을 그대로 사용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요즘은 스마트폰이 매번 정확한 시간으로 변경해 주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용하던 시간이 있어(45분 느린) 종종 혼동을 일으키곤 한다"고 덧붙였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 **사망원인 1/3 심뇌혈관질환, 그 뿌리는 '죽상경화증'**

12만km, 지구 세 바퀴. 우리 몸 속 혈관의 길이다. 그 긴 통로를 따라 혈액은 산소와 영양분을 몸속 곳곳으로 실어 나른다. 그런데, 만약 혈관이 막히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혈관이 막혀 문제가 생긴 위치에 따라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혈, 뇌경색, 혈관성 치매, 말초혈관 질환, 신경화증 등 다양한 질환이 발병할 수 있고, 심각한 경우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 혈관은 침묵의 장기이기 때문에 약 70%가 막혀도 대부분 증상이 없어 자신의 혈관이 얼마나 막혔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혈관 막힘의 가장 큰 원인은 콜레스테롤**

문제는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하다가 단 9초 만에 혈관이 막혀 사망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 원인은 바로 콜레스테롤 침착으로 인해 생긴 혈전(血栓) 일명 피떡 때문이다. 오래된 수도관에 녹이 슬고 이물질이 침착하여 지름이 좁아지게 되는 것처럼 혈관의 가장 안쪽을 덮고 있는 내막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내피세포의 증식이 일어나 죽종이 형성되는 질환을 '죽상경화증' 이라고 한다. 죽종의 내부는 죽처럼 묽어지고 그 주변 부위는 단단한 섬유성 막인 '경화반' 으로 둘러싸이게 되는데, 경화반이 불안정하게 되면 과열되면서 혈관 내에 혈전(피떡)이 생긴다. 이 혈전이 돌아다니다가 혈관을 막으면 순간적으로 아주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혈관이 막히면 올 수 있는 질환

			
뇌 뇌출혈, 뇌경색 뇌졸중(중풍), 혈관성치매	심장 협심증, 심근경색	신장 신경화증	말초혈관 손·다리 차고 저림, 간헐성파행, 발기부전

▶ **혈관 막힘으로 인한 질환들**

협심증은 죽상경화증 및 혈전에 의해 관상동맥의 내부 지름이 좁아져 심장근육으로의 혈류 공급에 장애가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 관상동맥이 좁아져 있기는 하지만 협심증

환자도 휴식 중에는 어느 정도 심장근육에 혈액공급이 이뤄질 수 있다. 그러나 운동을 하거나 힘든 일을 하는 경우, 또는 정신적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에는 심장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므로 필요한 혈액의 양이 증가하게 된다. 협심증 환자의 경우 관상동맥이 좁아져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혈액공급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고, 혈액량이 부족한 상태가 되어 가슴에 통증을 느끼게 된다.

심근경색증은 죽상경화증으로 인해 협착이 일어난 관상동맥에 갑자기 혈전(피떡)이 생기면서 심장근육으로 가는 혈류가 완전히 차단되어 발생한다. 이 경우에는 휴식을 취하더라도 가슴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다. 심장근육에 혈액이 30분 이상 공급되지 못하면 해당 부위의 심장근육 세포가 죽게 되고, 심부전으로 진행될 수 있다. 심장돌연사는 이런 이유로 1시간 이내에 사망하는 경우를 말한다.

말초혈관폐쇄성 질환은 대동맥, 대정맥에서 갈라지는 동맥과 정맥, 그리고 림프관이 죽상경화증으로 인해 혈관이 협착 되면서 해당 혈관으로부터 혈류를 공급받는 장기의 기능에 손상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심하면 절단 및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말초혈관 폐쇄는 하지동맥에 생기는 경우가 가장 흔하다.

▶ **혈관 막힘 예방을 위해서는 HDL높이고, LDL낮춰야**

혈관이 막히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높이고, 나쁜 콜레스테롤 LDL은 낮춰야 한다. LDL은 간에서 생성되거나 음식을 통해 흡수된 콜레스테롤을 인체 각 조직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LDL콜레스테롤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혈관 내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여 죽상경화증이 진행된다. LDL 콜레스테롤이 혈관 막힘의 주범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반대로, HDL콜레스테롤은 몸에서 사용하고 남은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다시 되돌려보내거나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좋은 콜레스테롤 또는 '혈관청소부' 라는 별명으로 불린다. 뇌졸중이나 협심증, 심근경색, 말초혈관폐쇄성 질환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혈관을 건강하고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이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는 생활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편집자주)



콜레스테롤 · 혈압 조절 기능성 ‘폴리코사놀’ 반드시 원산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 밝혀졌다

- ‘폴리코사놀’ 이름 같아도, 함량 및 유효성분 모두 달라 품질의 차이 커
- 한국 식약처에서 기능성 인정한 유일한 폴리코사놀 ‘쿠바산’ 확인 필요

쿠바산 폴리코사놀

원산지와 원료가 서로 다른 폴리코사놀을 대상으로 함량과 유효성분, 기능성을 비교한 연구에서 폴리코사놀의 종주국인 쿠바산이 가장 우수한 결과를 나타냈다. 폴리코사놀은 사탕수수나 쌀겨 등 식물의 왁스 혹은 밀랍 등에서 추출한 천연 지방족알코올을 총칭하는 말이며, 레이델연구원 조경현 박사팀은 폴리코사놀 4종(쿠바산 폴리코사놀-사탕수수왁스알코올, 중국산 사탕수수 폴리코사놀 2종, 중국산 쌀겨 폴리코사놀)을 실험재료로 선정하여 비교연구를 진행했다. 1993년 쿠바국립과학연구소에서 폴리코사놀에 대한 논문을 세계 최초로 발표했고, 이후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을 주요 기능성으로 하는 다양한 폴리코사놀 제품들이 세계 시장에 등장했다. 쿠바는 폴리코사놀의 종주국인 셈이다.

◆ 쿠바산 폴리코사놀에 유효성분 가장 많아

가스 크로마토그래피(GC)를 이용한 조성 및 함량분석 결과, 쿠바산 폴리코사놀의 유효성분 함량이 982mg/g으로 가장 높았으며, 중국산 폴리코사놀들의 유효성분은 518~610mg/g으로 나타났다. 폴리코사놀의 기능성을 나타내는 유효성분은 옥타코사놀, 헥사코사놀, 트리아콘타놀 등의 지방족알코올로, 이들이 얼마나 어떤 조성으로 들어있는가에 따라 기능이 달라지기 때문에 유효성분의 함량과 조성은 매우 중요하다. 쿠바산 폴리코사놀은 모두 8가지 지방족알코올이 들어있는 반면, 중국산 쌀겨에서 추출한 폴리코사놀에서는 6가지 지방족알코올이 확인되었다. 이렇듯 원산지에 따라 원료나 제조방법 등이 다양한 만큼 폴리코사놀의 기능성을 나타내는 유효성분의 함량과 조성에도 큰 차이가 있고, 이는 곧 제품의 품질이나 안전성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

◆ 쿠바산 폴리코사놀 HDL 양과 품질 (항산화, 항염증, 항당화) 가장 크게 높여

연구팀은 각각의 폴리코사놀이 HDL의 품질과 기능향상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해 HDL입자에 각각의 폴리코사놀을 넣어 재합성 했다. HDL은 콜레스테롤을 몸밖으로 실어 나르는 청소트럭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입자가

크고 그 수가 많을수록 혈관건강에 도움을 준다. 투과전자현미경(TEM)으로 폴리코사놀이 함유된 HDL을 관찰한 결과, 쿠바산 폴리코사놀이 함유된 HDL들의 입자가 가장 크고 양도 가장 많이 관찰되었다. 이에 비해 중국산 폴리코사놀들은 HDL의 입자도 작고 입자의 수도 현저히 적었다.

HDL은 크기는 작지만 강력한 항산화, 항당화, 항염증 작용을 갖고 있다. 이들 기능을 효과적으로 잘 수행할수록 품질이 좋은 HDL이며, 동맥경화와 심혈관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번 연구결과에서 폴리코사놀의 원료에 따라 HDL품질에도 큰 차이를 보였다.

쿠바산 폴리코사놀로 처리된 HDL은 LDL에 대해 약 35%의 산화 억제력을 나타내 15%(중국산 사탕수수), 18%(중국산 쌀겨)의 억제력을 보인 중국산 폴리코사놀보다 높은 항산화력을 나타냈다. 또한, HDL의 항염증 능력에서도 쿠바산 폴리코사놀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조합된 HDL들을 제브라피쉬 배아 내부에 미세주입 했을 때의 생존률은 쿠바산 폴리코사놀 그룹이 약 85%로 가장 높았으며, 중국산 사탕수수 폴리코사놀 그룹의 생존률이 약 62%로 가장 낮았다.

성분조성이 비슷해 보이는 폴리코사놀이라고 하더라도, 기능성의 지표가 되는 유효성분 뿐만 아니라 HDL의 양과 품질에 관련된 기능성 또한 크게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 이번 연구를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된 셈이다. 조경현 원장은 “폴리코사놀이라는 동일한 원료라고 해도 원산지에 따라 다양한 능력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쿠바산 폴리코사놀-사탕수수왁스알코올은 HDL의 크기와 품질을 향상시키는 능력에 있어 중국산 보다 매우 우수하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검증했다.”고 말했다.

폴리코사놀-사탕수수왁스알코올은 쿠바산 사탕수수 잎과 줄기부분의 왁스에서 8가지 고지방족 알코올을 특정 비율로 추출 정제하여 만든 것으로, 2006년 한국식약처로부터 국내 최초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성’을 인정받았으며, 2019년 ‘혈압 조절 기능성’까지 인정받았다.

폴리코사놀-사탕수수왁스알코올은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과 ‘혈압조절’ 기능성 두 가지를 모두 인정받은 최초이자 유일한 건강기능식품 원료이다.

[섭취량 :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5-20mg), 혈압 조절(20m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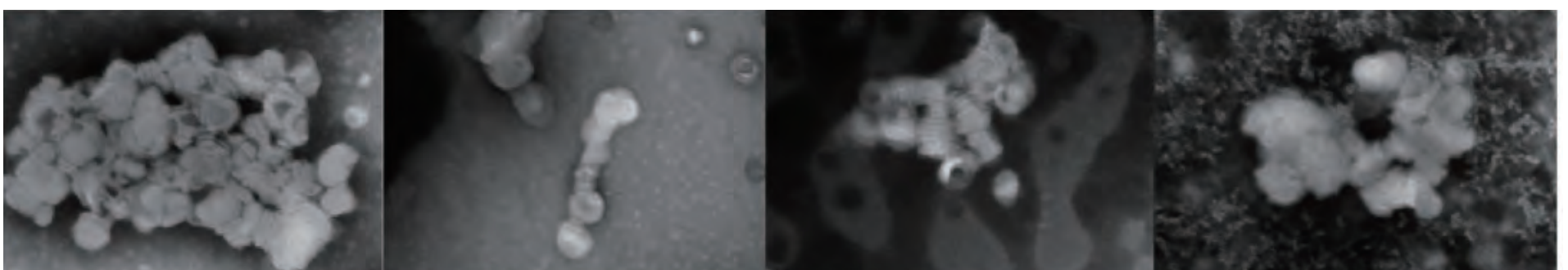
<투과전자현미경(TEM)으로 본 재조합 HDL 입자>

rHDL - 쿠바산 폴리코사놀

rHDL - 중국산 사탕수수 폴리코사놀(1)

rHDL - 중국산 사탕수수 폴리코사놀(2)

rHDL - 중국산 쌀겨 폴리코사놀



(편집자 주)



시와 산문이 있는 자리

220 빼기 나 그리고

이른 아침, 문을 나서는 내 목덜미에 서늘한 바람이 인사를 한다. 계절이 소리없이 문턱을 넘어서고 있다. 다시 들어가 걸쭉을 걸쳐야 하나..., 망설이다 좀더 빨리 걸기로 했다.

‘50을 넘기면서 부러운 것은 건강 유지’라는 지인들의 이야기가 가슴으로 다가온다. 젊어서는 그런 말을 해 주는 이도 없었거니와 설령 그렇더라도 절실하게 다가오지 않았다. 전쟁을 치르듯 살다가 결국 병원 신세를 진 게 20여 년 전이다. 운동이라고는 숨쉬기 운동이 전부였던 내가 허리 디스크로 병원 신세를 벗어나고자 혹독한 재활 과정을 거치며 ‘걷기’에 빠져들었다.

오랫만에 전화를 준 친구는 가까운 친구들의 이름을 얘기하며 뇌출혈과 심장마비, 암환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전한다. ‘그래? 상태는 괜찮은 거야?’라며 넘겼지만 늘 갖가지 병을 달고 살아 온 터여서 충격이 컸다. 그러고는 건강정보를 찾아보게 되었다.

‘유튜브’ 게시물을 뒤적거리다 우연히 알츠하이머 환자의 꽤유 사례를 담은 내용을 보았다. 순간, 머릿속에서 번개가 번쩍이는 기분이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세가 심해진다는 알츠하이머라는 병이 나왔다는 것도 그렇고, 지금까지 아침에 걷기만 하면 된다는 맹목적인 방법이 어쩌면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미쳤다. 심장 박동수에 따라 뇌로 혈류가 공급되는 것을 수치로 보여준 약 3초 정도의 영상이 나의 게으름을 일깨웠다. 심장박동이 강할수록 건강한 피가 뇌로 간다는 간단한 이론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전문 지식을 담은 의학 드라마, 인터넷 게시물들을 통해 접하는 의학 정보는 기본적인 상식 수준을 높여놓았다.

동영상 속의 의사가 알츠하이머 환자의 증세 호전에 대해 설명하는 도중, 무심결에 듣게 된 220이란 숫자와 자신의 나이라는 단어가 유난히 귀에 들어왔다. 눈에 보이는데도 테이블 위의 종이에 적어 놓았다. 동영상이 끝난 뒤 메모를 보았다. 그런데, 이 수치로 표기된 건강 지표가 무엇인지 떠오르지 않았다. 약 10여간 동안 들여다보며 생각을 깨웠지만 이해했다고 여겼던 내용이 내 머릿속에서는 까맣게 지워져 있는 것이었다. 그 때 갑자기 ‘치매’라는 불안감이 느껴졌다. 동영상을 보다가 얼핏 들은 것을 무턱대고 적어 놓았던 게 발단이었다.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이기도 했다. 하지만, 치매 환자의

삶이 어떻게 황폐해져 가는지를 가끔 보아왔던 탓일까. 어쩌면 내게도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불안감이 쉽게 사그러들지 않았고 치매에 대한 우려와 초조, 심지어 긴장감마저 엄습해 왔다. 서서히 모든 기억을 잃어가며 자신이 걸어온 과거의 시간을 녹여버리고, 끝내는 아무도 기억해 내지 못한 채 동물의 본능으로 죽어간다는 질병. 자신과 연관된 모든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막막함, 나에게 남은 삶도 그런 시간들로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일까.

머칠을 우울하게 보냈다. 건망증은 ‘내게는 건망증이 있어’라는 것을 인식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므로, 내 증상이 치매가 아닌 건망증이려면, 지금쯤은 그 숫자가 무엇이였는지, 다시 기억 속에서 되살아나야 했다. 거의 한 주가 지나도록 그 수치의 의미, 결과, 그것이 나오게 된 과정을 되짚어 봐도 도무지 떠오르지 않으니... 치매에 대한 불안감은 더욱 커졌다. 프로그램을 찾아 다시 보면 된다는 생각으로 유튜브에 접속해 뒤적였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봤던 그 영상은 눈에 띄지 않았다. 서서히, 치매에 대한 불안감은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다.

당장이라도 의사와 상담해 봐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증상을 더디게 하는 약물이 있다는 것을 떠올렸지만, 우선은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다. 초조감을 넘어서 공포가 시작되었고, 심지어 악몽으로 깊은 잠을 잘 수 없었다. 사무실에 출근해 고객을 만나는 게 두렵고 전화가 오면 행여 잘못된 정보를 줄까 가슴이 떨렸다. 치매 증상 초기에 복용하는 약물이 있다는데 생각이 미치자 어쩔 수 없이 가정의에게 전화하기로 용기를 냈다.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수화기를 들었다. 모두가 사무실을 비운 시간에 통화를 하기로 했다. 암담한 심정으로 신호를 세었다. 정확히 4번째 신호에서 딸깍 하는 소리에 이어 굵은 바리톤 목소리가 들렸다.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 생각과 달리 눈물이 그치지 않아 우물거리며 상황을 설명했나 보다. 3번이나 되묻는 바람에 큰소리로 ‘치매에 걸렸다고요, 기억이 안 난다고!’라고 말해버렸다. 이어진 내 이야기를 참을성 있게 듣던 의사는 꺾꺾 웃었다. “그 정도면 치매가 아니에요. 이미 오늘 예약은 다쳤으니 내일 아침 일찍, 7 시까지 병원으로 오세요.”

대수롭지 않는 듯한 의사의 말들, 심지어 내 절실함을 간단하게 넘겨버리는 그에게 못내 섭섭했다. 순간, 나도 고객들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한 채 내 생각대로 해 온게 아닌가 하는 자책이 들었다. 그제서야 고객들이 나의 냉정한 말투로 인해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다. 나를 찾아오는 그들을 좀더 헤아려야겠다는 다짐을 한다. 전화를 끊고나니 고백 성사를 한 기분이다.

다음 날 새벽같이 일어나 병원으로 갔다. 미리 준비해 두었는지 그의 진료실 책상 위에는 여러 가지 그림과 종이들이 순서대로 놓여있었다. 나 하나 때문에 더 이른 시간에 나왔을 터임에도 의사는 힘든 내색 없이 따스한 미소를 지었다. 그가 만들어 준 분위기 탓인지 여유가 생겼다. 그리고 보니 어젯밤엔 좀 잔 것 같다. 한참을 퍼즐 맞추듯 그림과 질문을 이어갔다. 잠시 후, 의사가 ‘전혀 치매 증상은 없는 듯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검사를 위해 혈액을 뽑았다.

이틀 후 다시 방문한 병원에서 의사로부터 ‘모든 것이 정상’이라는 말을 들었다. 지난 얼마간의 시간동안 나를 유폐했던 불안감이 ‘근거 없음’이라는 판정이었다. 가슴속으로 시원한 파도가 일렁이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기억 하나가 머릿속에서 반짝하고 튀어올랐다.

‘220 빼기 내 나이 = 내가 운동으로 울려야 하는 순간 심장 박동수’. 메모까지 해 두고는 까맣게 잊고 있던 바로 그 숫자의 의미였다.



장미혜

시드니에서 회계사로 근무.
문학동인 캥거루 회원.
산문집 ‘오심에 점을 찍다’.



Excellence in Christian Education - Truth Education Restoration
Australian College of Christianity
 호주기독교대학교 RTO 40892 CRICOS 03461B

스포츠코칭학과

골프전공

초급.중급.고급반 학생모집

온라인수업 가능 / 골프장 실습과 지도 훈련
 현 프로 골퍼 교수님들 지도
 어스터디 지원 가능(상담필요)

전과정 온라인 가능

CHC81015	상담학과 준석사	Graduate Diploma Of Relationship Counselling
CHC51015	상담학과 준학사	Diploma Of Counselling
CHC43315	정신건강 Cert IV*	Certificate IV In Mental Health*
CHC42315	교목과 목회돌봄*	Certificate IV In Chaplaincy And Pastoral Care*
CHC43015	노인돌봄 Cert IV*	Certificate IV in Ageing Support*
SIS50321	스포츠 준학사	Diploma Of Sport
SIS40321	스포츠코칭 Cert IV*	Certificate IV In Sport Coaching*
11237NAT	신학 Cert IV*	Certificate IV in Christian Ministry and Theology*
11238NAT	신학 준학사	Diploma of Christian Ministry and Theology
11239NAT	신학 고급 준학사	Advanced Diploma of Christian Ministry and Theology
11231NAT	신학 준석사1	Graduate Certificate in Christian Ministry and Theology
11232NAT	신학 준석사2	Graduate Diploma of Christian Ministry and Theology
CUA51020	영상미디어 준학사	Diploma of Screen and Media
CUA31020	영상미디어 Cert III*	Certificate III in Screen and Media*
CUA41220	영상미디어 Cert IV*	Certificate IV in Screen and MrdiaCare*

*표시는 정부생활비보조 어스터디 가능한 학과입니다. 상위과정은 어스터디 가능 코스와 더블 degree 로 하시면 많은 장학금 적용을 받아서 공부 가능합니다.



학생들의 필요에 맞는
 스포츠 종목 추가
 예정입니다.

교민들을 위한 장학금과 사역자 장학금 추가 적용

교회와 단체 협력 캠퍼스 모집 (지금 문의 주세요)

ACC 협력기관



소중한 당신을 위한
호주 한인 생명의전화

+61) 2 9858 5900
 24시 무료상담

info@koreanlifeline.org
 www.koreanlifeline.org

생명의 전화는 삶의 벼랑 끝에 있을 때 혼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돕고 있습니다. 위기 상담과 정보 제공 및 의뢰처를 연결해 드립니다. 호주 전역 24시간 가능.
 *상담원 모집 문의 : +61) 430 045 078



원앤원(One&One)
 심리상담연구소

+61) 2 9622 1047
 +61) 402 140 905

info@accu.edu.au

탁월한 심리 상담연구소 원앤원(One&One)에서는 경험있는 전문가들을 통해 각종 정신건강, 심리문제 및 가족, 관계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우며 관련 심리 검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Charis College
 Ministry

+61) 402 140 905

ccm@accu.edu.au

선교지에 상담학 교육 사역을 시작합니다. 세계 곳곳의 선교지에 전역 장학금 교육을 실시해서 호주 상담학 학위를 수여하여 기독교 상담자를 양성하여 선교 국가에 개인과 가정, 사회와 나라를 치유하는 사역입니다.
 (현재 일본, 몽골, 탈북민, 태국, 말레이시아 시작)

+61) 2 9622 1047, +61) 402 140 905
 www.accu.edu.au, info@accu.edu.au



시드니/캔버라
 멜번/브리즈번





짧은 시간에 Christ The Good Shepherd Church로 몰려든 사람들. 이들은 중동지역 국가에서 종교적 박해를 받다가 호주로 이주한 그리스도교 신자들이며, 그 아픈 기억이 교회 지도자 공격에 분노하게 했고, 폭동으로 변했다. 사진: Nine Network 뉴스화면 캡처



경찰은 Christ The Good Shepherd Church 폭동과 관련해 첫 체포자인 다니 만소르(Dani Mansour, 19세, 사진)를 기소했다. 사진: NSW 경찰청

▶3면에서 이어받음

동시에 소셜미디어를 통해 엠마누엘 목사를 추종하던 이들의 행동은 ‘명예를 소중히 하고 정부에 대한 불신이 높으며 쉽게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극도로 보수적인 이 지역 일부 그리스도교 종파의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하나의 창을 제공했다.

이날(4월 15일) 웨이클리에 있는 Christ the Good Shepherd Church에서 설교 중인 주교를 공격한 16세 소년(그는 현재 ‘테러’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다)의 행위를 온라인으로 지켜보던 최대 2,000명의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주교를 돕거나 당시 교회 예배에 참여 중이던 친구, 친척의安危를 걱정해 이 교회로 몰려든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수십 명의 경찰이 부상을 입고, 거의 100대에 달하는 차량(경찰차

포함)이 파손되었으며,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출동한 6명의 구급대원이 교회 안으로 대피해야 했던, 이들(교회로 몰려온 2,000여 명의 군중)의 폭동은 각 교회 지도자들에게 충격을 던졌고 당국에게는 대규모 소요사태를 우려하게 만들었다.

이 폭동 혐의로 가장 먼저 경찰에 체포된 19세의 다니 만소르(Dani Mansour, Doonside 거주)는 이날, 자동차로 약 30분 거리에 있는 웨이클리 교회로 와 경찰차를 발로 차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심리를 위한 법정 출석에 앞서 “교회에서 일어난 일로 화가 났다”고 말했다.

폭동 발생 배경, “복잡한 요인 있다”

현재 이 폭동 상황에 출동했던 NSW 경찰청 ‘Strike Force Dribs’ 팀은 600시간 분량의 영상을 조사하고 있으며 카렌 웹(Karen Webb) 경찰

청장은 폭동에 깊게 연루된 약 50명에 대해 체포, 기소할 방침임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폭동 행위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지만, ‘이날 교회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폭동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복잡한 요인이 얽혀있다고 말한다.

사건이 발생한 아시리아 정교회(Assyrian Orthodox)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분리된 그리스도교 종파의 하나이다. 디킨 대학교(Deakin University) 정치 및 극단주의 종교 폭력을 연구해 온 조시 루즈(Josh Roose) 부교수는 “중동 지역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아시리아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로 이들 공동체는 ‘믿을 수 없는 결집력으로 그들의 교회뿐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을 보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칼을 든 공격자의 직접적 표적이 된 것은... 이들의 오래 저항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이들은 공격을 피하는 게 아니라 맞서 싸우는 것을 택해 왔다”는 것이다.

당시 Christ the Good Shepherd Church에서 설교 중이던 주교가 공격을 당한 일은 단체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가 아니라 아시리아, 마론파, 가톨릭, 콥트 기독교 공동체에 이 영상이 빠르게 유포되면서 이들에게 더욱 절실하게 느껴졌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그렇기에 이들은 ‘즉각적으로’ 교회 지도자, 예배 참여자를 ‘보호하고자’ 각지에서 교회로 몰려갔다.

당시 교회 군중들을 담은 영상에는 “그(공격한 16세 청소년)를 데리고 와”, “눈에는 눈”(an eye for an eye)이라고 소리치고, 또 벽돌이나 돌을 들고 경찰 차량에 던지는 등의 장면이 담겨 있다.

그렇다면, 경찰은 어떻게 대규모로 출동하게 됐을까. 비록 흥기 공격이지만 총기를 가진 사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날 많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한 가지는, 가해자가 다수 흥분한 군중에 의해 무슨 일을 당할지 우려했거나 적어도 주교를 지지하는 이들의 복수(revenge) 공격을 염려했던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루즈 부교수는 “이름에 기반한 문화(honour-based culture)”라고 말했다. “이 명예 기반 문화는 일반적으로 법적 조치에 의존하는 다른 문화보다 ‘눈에는 눈’이라는 접근방식에 더 가깝다는 설명이다.

콥트 기독교 신자인 모니카 게이드(Monica Gayed)씨는 “우리 지역 사회의 대다수 사람들은 종교전쟁 범죄를 피해 호주로 이주했거나 그런 부모를 가진 사람들”이라며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안정을 얻었는데, 그것이 이날(4월 15일) 테러로 깨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 오랜 피해의식이 빠른 시간에 유사한 신앙공동체 사람들을 Christ the Good Shepherd Church 현장으로 끌어들이고, 이들의 분노가 표출됐다는 것이다.

“억압과 박해를 받아온 공동체 역학의 일부”

하지만 이 군중들의 분노는 주교를 공격한 것에 대한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 아시리아 기독교 신자들은 ‘정부는 물론 경찰에 대한 불신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국가 출신들이다. 이는 전염병 대유행 당시 시드니 서부 지역의 강한 제한 조치로 공권력에 대한 분노가 악화되었을 것으로 풀이된다. 루즈 부교수는 “이를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맥락이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2005년부터 페어필드(Fairfield)에 거주하며 노동당 당원으로 활동하는 칼데아 가톨릭 교회(Chaldean Catholic) 신자 바심 샤마온(Basim Shamaon)씨는 사건 당일

(4월 15일) 밤, 자신도 웨이클리에 있는 교회로 가려 했으나 도로가 통제되어 있음을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군중들의 분노는 무엇보다 흥기 공격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드니 서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됐던 강력한 팬데믹 봉쇄에 대한 기억, 이 지역 거주민들이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가 떠올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렇기에 “사람들(웨이클리 교회로 몰려든 군중들) 혹시 예배에 참여 중인 가족이나 친척, 친구가 안전한지 필사적으로 확인하고 싶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주교를 공격했던 16세 소년이 신자들에 의해 제압되는 장면, 붙잡힌 뒤에도 미소를 보이던 영상을 언급하면서 샤마온씨는 “그(16세 소년)가 아랍어로 말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고 말했다.

다만 샤마온씨는 군중들의 행동이 의문이라는 말도 했다. “(자신은) 그리스도교 커뮤니티에 속한 사람인데 폭동을 벌인 이들은 우리(그리스도교 커뮤니티 사람들)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그는 “경찰을 향해 공격하는 행동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면서 “그들(경찰)은 피해와 위험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그것에와 있었고, 용납될 수 없는 방식으로 대우받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3월, 벨필드(Belfield)에 있는 성 미카엘 교회(St Michael’s Church)에서 동성애 반대 자이자 전 정치인 마크 레이섬(Mark Latham) 주최 행사가 열렸을 당시 교회 밖에서 LGBTQ 시위자들과 충돌한 그룹과 마찬가지로 이 군중들(보수적 기독교인들)은 대다수가 남성이었다.

▶31면으로 이어짐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30면에서 이어받음

마르 마리 엠마누엘 주교가 좋아하는 극단적 보수주의 종교단체 'Christian Lives Matter' (LCM)가 주최한 과거 집회도 마찬가지이다.

루즈 부교수는 LCM에 대해 "이전처럼 활동적이지 않지만 이런 움직임은 이벤트를 중심으로 돌아가며, 작은 반응에도 쉽게 동원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초남성성의 요소가 커뮤니티 전체에 퍼져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바로 억압과 박해를 받아온 공동체 역학의 일부이며, 이에 대한 보호 장벽과 완충 장치가 강조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서부 지역 거주자들의 '소외감'도 작용한 듯

이날 폭동을 목격한 또 다른 한 사람은 "이날의 폭동을 설명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할 일이 없는) 지루한 일상, 체육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거나 시드니 서부 기반의 축구팀 '웨스턴 원더러스' (Western Sydney Wanderers) 경기에서 폭죽을 터뜨리는 '성질 급한 이들' (hotheads)이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페러필드 카운슬(City of Fairfield) 프랭크 카본(Frank Carbone) 시장은 이날 폭동을 일으킨 군중들 대다수는 단순히 교회(Christ the Good Shepherd Church) 예배에 참여한 가족, 친척, 친구를 돕고자 그곳에 모인 이들이라고 강조했다. 시장은 "경찰이 50명을 체포했다면, 이는 폭동 현장에 있는 이들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이라며 "불행하게도 그 지역 외부 사람들이 몰려와 다른 이유로 폭력적 행동을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살인자의 정신건강 문제가 부각된 지난 4월 13일(토), 웨스트필드 본다이정션(Westfield Bondi Junction) 쇼핑센터에서의 사건(무차별 칼부림으로 6명 사망 12명 부상)과 달리 경찰은 Christ the Good Shepherd Church에서의 흥기 공격을 '종교적 동기에 의한 테러' (religiously motivated terrorism)로 신속하게 선언, 무슬림 커뮤니티의 반발을 사고 있다. 사건 발생 5일째 되던 지난 4월 19일(금), 법원은 첫 체포자 다니 만소르(Dani Mansour, 19)에 대한 심리에서 그가 정신건강 문제와 일치하는 행동 이력을 갖고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크리스 민스(Chris Minns) NSW 주 총리는 지역사회가 침착하게 행동할 것을 촉구했다. 주 총리는 지난 4월 18일(목) NSW 경찰청 피터 서텔(Peter Thurtell) 부청장, 그의 전임자이자 현재 NSW 다문화위원회를 이끄는 닉 칼다스(Nick Kaldas) 위원장을 포함한 각 종교 지도자, 정부 고위 관리들과 관련 회의를 가졌다.

루즈 부교수는 "상황이 악화되는 것에 정부도 당연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이번 Christ the Good Shepherd Church 폭동과 같은 성격의 사건을 악용할 수 있는 특정 지역 사람들에게 접근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

"시드니 서부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에 걸쳐 극히 보수 성향의 종교적 견해를 가진 남성들이 많으며, 이들 중 다수는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되어 있고 또 '명예 문화' (honour culture)로 지역사회에 묶여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한국신문
THE KOREAN HERALD
Korean Community's & Best Quality Newspaper

"한국신문은 호주한인사회의 밝은 등불이 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 사장 이윤신 Peter Lee
- 편집인 김인구
- 편집국장 김지환 Kevin Kim
- 디자인 Emily Cha
- 관리 이선옥

카카오톡 : Koreanherald
페이스북 : 한국신문

T. (02) 9789 3300
E. herald@koreanherald.com.au
W. www.koreanherald.com.au
A. 105/118 Great North Rd
Five Dock NSW 2046

저작권자(©)한국신문 -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한인직영, 한인전용 한솔장례식장

“장례 기간중 입관식, 장례식, 빈소운영, 조문객 접대등 모든 절차를 준비된 한곳의 장소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1. 예식장 - 장례식, 입관식 & 추모식 진행 - 70명 + 수용 규모
2. 빈소 - 장례 기간중 조문을 받을 수 있는 한인 전통식 공간
3. 조문객 접대실 - 장례 기간중 방문하신 조문객 접대 - 80명 동시 수용 규모

4. 부엌 - 조문객 접대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 넓은 공간
5. 유가족 휴게실 - 빈소 운영중 필요에 따라 유가족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전용 공간



* 빈소



* 장례식/추도식/입관식을 진행할 수 있는 예식장 (70명 수용)



* 조문객 접대실 X 2 * 유가족 휴게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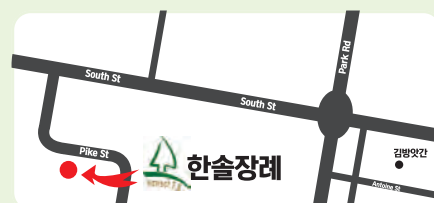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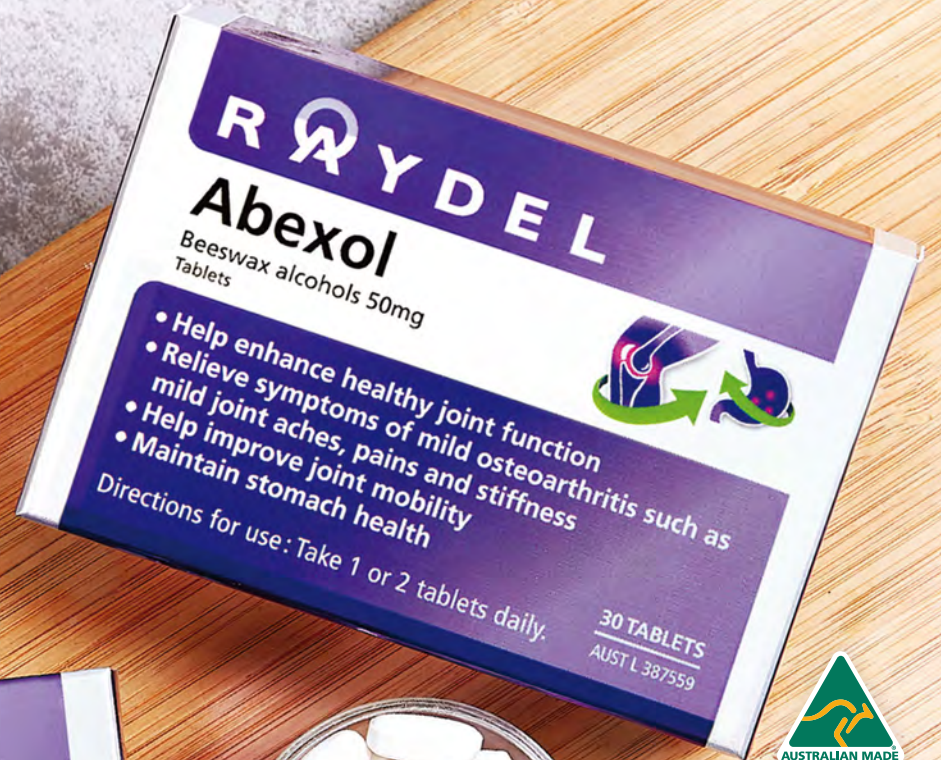
* 장례식장 홀



한솔장례 Hansol Funeral Services P/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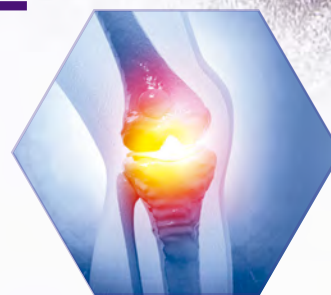
문의: 02 9858 5547 / 0404 116 758 (주 7일 / 24시간)
주소: 12 Pike St. Rydalmere NSW 2116
info@hansolfs.com.au / www.hansolfs.com.au





관절건강을 위한 레이델 아벡솔

- ✓ 건강한 관절 기능 강화에 도움
- ✓ 관절통증, 뻣뻣함, 부기 등 경미한 골관절염 증상 완화
- ✓ 관절 가동성 향상에 도움
- ✓ 위(胃) 건강 유지



경증 골관절염(OA) 경미한 관절 통증, 뻣뻣함, 관절 운동 장애와 같은 증상이 특징입니다. 경미한 골관절염을 관리하고 증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과 체중 관리가 중요합니다. 레이델 아벡솔은 6가지 고분자량 알코올의 혼합물인 비즈왁스알코올들 50mg을 함유하고 있으며, 경미한 골관절염 증상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건강을 유지합니다. 항산화 효과가 있으며 전반적인 건강과 웰빙을 유지합니다.

김명민



레이델 홍보대사 배우 김명민

Always read the label and follow the directions for use.